

Form 20-F 한글 요약번역본

당사가 공시하는 Form 20-F 의 한글 요약번역본(이하 ‘요약번역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1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제1항 2호 가목 (7) (나)에 의하여 공시된 것으로서, 당사는 2016. 4. 28. 미합중국(이하 ‘미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에 공시된 Form 20-F Annual Report(2015)의 내용을 그 취지에 따라 요약하여 본 요약번역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공시한 요약번역본의 원문인 Form 20-F Annual Report(2015)는 당사의 영문 홈페이지의 SEC Filings-Form 20-F¹나 SEC 홈페이지²에 공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Form 20-F Annual Report(2015) 중, 당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나타내는 표와 그 표에 대한 설명은 본 요약번역본에서는 명칭(또는 간략한 설명)과 표만으로 기재하여 본 요약번역본에 첨부하였습니다. 원문과 본 요약번역본 상의 당사와 관련된 법령과 관련규정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감독법규’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요약번역본에서 “원문”이라 함은 당사의 “Form 20-F Annual Report(2015)”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라 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경우에 따라서는 KB 국민은행)의 “2015년도 사업보고서”와 “2015년도 감사보고서(연결보고서 포함)”를, “IFRS”이라 함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회계기준)”를, “K-IFRS”이라 함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s adopted by the Republic of Kore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각 의미합니다. 다만, 본 요약번역본에 명시된 일부 금융용어는 IFRS 와 K-IFRS 상의 정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소: http://www.kbfg.com/Eng/Public/FbUSgaap/kbfg/eng_list.jsp

2. 주소: <http://www.sec.gov/Archives/edgar/data/1445930/000119312512194041/d333301d20f.htm> 이며, SEC 홈페이지상에서는 Search for Company Filings-Company or fund name...-KB Financial Group-CIK(0001445930)-20-F 를 참조할 것.

재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원문에 포함된 재무정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하 “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IFRS as issued by the IASB)에 따라 작성되었음. 당사는 IASB 가 발표한 IFRS 를 준수하여 원문에 포함된 2014년 및 2015년 말 현재 및 2013, 2014, 2015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정보를 명백하고 진실하게 작성하였음. 본문에서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문의 재무정보는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및 2015.12.31. 현재 및 동 일자 종료 각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IASB 가 발표한 IFRS 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US GAAP 에 따라 작성된 정보와 비교될 수 없음. 2008.3.4. 발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채택한 규정 변경으로 당사는 US GAAP 에 따른 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 명시적으로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원문에 포함된 모든 재무정보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함.

본 요약번역본에서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당사”, “우리” 또는 “KB 금융그룹”은 KB 금융지주 및 KB 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을 의미함. 또한 본 요약번역본에서 인용되거나 첨부되는 표에서, 어떠한 항목의 총액과 합계금액의 불일치는 반올림한 결과임. 편의상 원문에서의 원화(W)와 미화(\$)의 환율은 2015.12.31.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정오매입율인 1,169.3원 = 미화1.00달러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였음.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

SEC 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전망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정보를 통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을 공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바, 원문은 이에 따라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음. 다만, 원문의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와 더불어, 전략의 성공적 수행능력, 미래의 무수익여신 수준, 당사의 성장과 발전, 신용손실과 투자손실에 대한 총당부채의 적정성, 기술의 변화, 이자율, 투자소득, 자금조달과 유동성의 용이성, 자금운용전망, 시장리스크의 노출 정도, 비우호적인 시장상황 및 감독규제 등 기술되지 않은 여러 위험요소로 인하여 원문의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과는 크게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위험요소는 그 본질상 추정치이므로, 향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당사의 장래 영업성과와 수익에 대한 실제손익 또는 영향 등은 추정치와 크게 다를 수 있음 (예를 들면, 수익감소, 비용증가, 자본비용증가, 자본투자의 지연, 예상되는 영업성과 향상의 미실현 등). 또한, 영업 또는 투자에 대한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영향, 국내의 통화 및 이자율 정책,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예상외의 이자율 변동, 외화환율, 주식과 채무증권의 가격과 수익률,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 국내외 법규정의 변경, 국내 경쟁과 가격결정의 변화, 자산가치의 지역적 또는 전반적 변화 등 기술되지 않은 여러 위험요소들에 의하여 원문에서 평가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위험요소에 관한 세부내용에 관하여 원문과 본 요약번역본상의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를 참조하기를 바라며, 본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원문 작성시점에 국한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원문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임.

당사는 법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문의 미래 상황에 대한 서술을 업데이트 또는 수정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

Item 1. 이사, 경영진, 고문 : 해당사항 없음.

Item 2. 공모 통계 및 예상 일정 : 해당사항 없음.

Item 3. 주요 정보

Item3.A. 요약재무제표

원문에 있는 당사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15년 말 현재 및 동 일자 종료 각 회계연도의 각 요약연결재무제표와 영업정보는 IASB 가 제정한 IFRS 기준으로 작성된 당사의 감사필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15년 말 현재 및 동 일자 종료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인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의 회계감사를 받았음. 보다 자세한 재무자료는 본문의 “Item 5. 영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및 전망”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첨부 표1)

원문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부분은 IFRS 에 기초한 것이며,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부분은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와 감사보고서 중 연결포괄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연결재무상태표: 첨부 표2)

원문의 연결재무상태표 부분은 IFRS 에 기초한 것이며,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연결재무상태표 부분은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가.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연결감사보고서 중 연결재무상태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수익성지표 및 기타자료: 첨부 표3)

원문의 수익성지표 및 기타 자료 부분은 IFRS 에 기초한 것이며,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자기자본비율: 첨부 표4)

원문의 자기자본비율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자기자본비율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자산건전성 비율 및 기타자료: 첨부 표5)

원문의 자산건전성 비율 및 기타 자료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요약통계정보

평잔 및 관련 이자손익: 첨부 표6)

원문의 평균잔액 및 관련 이자손익 부분은 IFRS 에 기초한 것이며,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관련 이자손익 부분은 감사보고서 주식(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순이자이익의 변동 추이 분석 - 규모 및 이자율 분석: 첨부 표7)

원문의 순이자이익의 변동추이 분석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환율

원문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원문에 기재된 환율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정오매입률에 의한 것임.

Item3.B. *자본 및 부채 : 해당사항 없음.*

Item3.C. *공모 사유 및 대금의 사용 : 해당사항 없음.*

Item3.D. *투자 리스크 요소*

당사의 가계여신 포트폴리오 관련 리스크

장래 시장 상황의 변화 등 기타 요소로 인하여 당사 가계여신부문의 연체수준이 증가할 수 있음.

당사의 가계여신(주택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은 2012.12.31. 현재 103,432십억원에서 2013.12.31. 현재 107,644십억원, 2014.12.31. 현재 119,249십억원, 그리고 2015.12.31. 현재 124,194십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당사 국내 여신 총액의 50.1%에 해당함. 당사의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당사의 기타가계자금대출은 주택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개는 무담보대출로서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큰 경향이 있는데, 당사의 기타가계자금대출 잔액은 최근 증가 추세로 2012.12.31. 현재 28,969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36,312십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가계여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12.31. 현재 28.0%에서 2015.12.31. 현재 29.2%로 증가함. 가계여신부문은 보통 다른 여신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이므로, 당사 가계여신부문의 성장은 최근 당사의 이자수익과 수익률에 크게 기여하였음.

한국과 전세계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최근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증가는 연체 수준과 자산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 최근 몇 년간 연체수준이 비교적 안정되어 당사의 무수익 가계여신(연체기간 90일 이상의 여신)이 2012.12.31. 현재 762십억원에서 2013.12.31. 현재 546십억원, 2014.12.31. 현재 395십억원, 그리고 2015.12.31. 현재 329십억원으로 감소함. 그러나 장래의 높은 가계여신 연체율로 인하여 당사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가계여신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다는 것은 당사가 한국 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함. 즉, 한국 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업률의 증가, 이자율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계속되는 하향세 또는 기타 한국 경제의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사 가계여신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관련 자산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국내 상황 관련 리스크” 부분 참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가계대출절차의 개선 및 가계신용평가시스템의 강화 등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자산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음.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한국 경제의 악화를 고려하여, 2009년 3월 금융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은행들에게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pre-workout program)”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2009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상기 프로그램은 단기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신용상당과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은 총 채무액이 15억원(5억원 이하의 무담보 대출 및 10억원 이하의 담보대출) 이하이고 연체일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면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지원됨. 또한, 2015년 3월에 가계여신의 증가 수준 및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채무자들의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우려에 따라, 한국 정부는 변제부담을 줄이고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국내 은행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함. 이러한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34만명이 넘는 적격 개인 채무자들은 2015년 모든 시중은행(당사 포함)으로부터 제공받은 약 34조원 규모의 변동금리부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부·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였음. 당사의 이러한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당사의 전반적인 순이자마진뿐만 아니라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수익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나아가, 이와 같이 정부의 개인 채무자 관련 금융지원책에 당사가 참여하게 될 경우, 당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조건의 여신을 제공할 수 있음.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당사의 신용카드사업은 장래에 손실이 날 수 있고, 이것은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신용카드 포트폴리오 연체율(신용카드 총대출잔액에 대하여 3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율을 뜻함)은 2012.12.31. 현재 1.3%에서 2013.12.31. 현재 1.7%로 증가하였다가 2014.12.31. 현재 1.5%, 그리고 2015.12.31. 현재 1.2%로 감소하였음.

당사는 업계 관행에 따라 신용카드 계정의 연체잔액(30일 이상 연체된 잔액을 의미)중 일정 부분을 대환론(restructured loan)으로 취급하였음. 2015.12.31. 현재 대환론 잔액은 36십억원임. 대환론은 취급시점 또는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 연체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의 연체채권비율은 연체채권의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2015.12.31. 현재 대환론 채권 전체를 연체채권으로 간주할 경우 신용카드 연체율은 1.4%임. 한국의 부정적 경제상황과 증가된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 가계대출자의 관리능력 부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연체는 2016년 및 향후에 증가할 수 있음.

신용카드의 자산건전성 및 영업실적을 유지 및 향상시키려는 당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연체 증가 및 자산건전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산 상각을 증가시키거나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2014년 2월 금융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에 KCB의 직원이 다수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개월간 KB국민카드의 신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에 관련된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음.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부 영업정지 기간 동안 KB국민카드는 다음의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음.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회원의 신규모집 및 신규카드 발급업무 (단,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허용)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규 대출 약정의 체결
-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의 신규취급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다수의 피해 고객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추가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관하여는 “Item 8A. 연결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 - 법적 분쟁”을 참조하기 바람. 또한, 피해고객에 대한 카드재발급 및 기타 부수 비용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음. KB국민카드에는 또한 개인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고객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그에 따른(3개월간의 일부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민원 처리 및 그 비용은 당사의 사업, 평판, 운영결과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소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

당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지 않은 익스포져 규모를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재무적 어려움은 당사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당사의 중소기업대출은 2012.12.31. 현재 70,471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78,665십억원으로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당사의 중소기업대출 중 무수익여신은 2012.12.31. 현재 680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309십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무수익여신비율은 2012.12.31. 현재 1.0%에서 2015.12.31. 현재 0.4%로 감소하였음. 2016년에는 당사의 무수익여신과 무수익여신비율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 집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의 연체율은 2015.12.31. 기준으로 0.7%임. 당사의 중소기업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2.12.31. 현재 1.1%에서 2015.12.31. 현재 0.5%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6년에는 증가할 수 있음. 이에, 당사는 중소기업대출의 연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업, 숙박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및 부동산업 등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높은 연체율을 보이는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고객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을 면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의 연체 수준이 장래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음. 특히 최근 한국과 세계 경제의 침체에 의해 중소기업들이 겪게 되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사의 중소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이 앞으로 저하될 수 있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서 재벌과의 밀접한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재벌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당사가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당사의 중소기업 고객들의 상환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음.

당사의 중소기업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이른바 소호(SOHO, Small Office/Home Office)고객에 대한 대출임. 이와 같은 소호 고객은 대체로 다른 기업고객에 비하여 경기 변동에 훨씬 크게 영향을 받음. 당사는 잠재 고객 특히, 소호 고객의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고객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해 나갈 것이지만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태 및 유동성이 악화되자, 한국 정부는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재무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이에 2008년 10월, 금융감독원은 당사를 포함한 국내 은행들에게 적격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당사는 2016.12.31.까지 시행하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통하여 신규대출, 대출기간 연장, 이자율재조정 등의 유동성 지원을 함. 2016년과 그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정책 및 지침을 연장하거나 한국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지침을 도입할 수 있음. 당사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지침에 참여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중소기업 여신을 확장하게 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이 반드시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정부 주도의 지침에 따른 당사의 중소기업 익스포저의 증가는 향후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한국의 건설·조선업체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의 재무 악화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2015.12.31. 현재 당사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은 3,482십억원, 조선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은 974십억원이며, 이는 각각 당사 총대출액의 1.4%와 0.4%를 차지함. 당사는 한국의 건설·조선업체에 보증의 형태로 다른 익스포저도 가지고 있음(이는 2015.12.31. 현재 건설업체에 대한 확정지급보증 606십억원과 조선업체에 대한 확정지급보증 1,698십억원을 포함). 건설업체의 경우, 주택·상업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당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당사에 담보로 제공해준 익스포저가 있음. 조선업체의 경우, 발주 계약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선수금을 환급하게 될 경우에 이를 지급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 익스포저가 있음.

한국의 건설산업은 한국경제의 악화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최근 전반적인 하향세에 있음. 한편 한국의 조선업 역시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선박 주문이 감소하여 심각한 하향세에 있음. 건설·조선업체의 재무상태 악화와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 주요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을 독려했음. 그에 따라 2009년, 24개의 건설업체와 5개의 조선업체가 당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한국 정부의 평가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갔음.

2009년부터 매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공여액이 50십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들에 대하여(당사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수행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을 워크아웃, 청산 또는 법정관리 형식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가장 최근으로는, 2015년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신용공여액이 50십억원 이상인 54개사(이중 14개사가 건설업체이며 4개 회사가 조선업체)를 선정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한국의 건설·조선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정화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음.

당사의 한국의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비한 신용손실충당금이 장래의 모든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며,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당사의 익스포저 관련 신용상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상당한 총당금을 쌓도록 요구될 수 있음.

당사는 또한 한국에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인한 건설 관련 신용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음. 한국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자산건전성이 일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KB 국민은행을 비롯한 한국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공통된 ‘모범기준’을 시행하였음. 그 결과, 당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미상환대출금에 관한 추가적인 총당금을 설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당사의 금융지주회사 구조와 전략 관련 리스크

당사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

신용카드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타 사업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당사는 2011년 3월, KB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였음. 그 결과,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별도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B 국민카드가 당사의 신용카드업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의 주요 전략은 기존의 폭넓은 가계·기업 고객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누리는 것임.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본, 기반시설, 인력 및 경영에 대하여 투자가 요구됨. 만일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사는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어려워질 수 있음.

나아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성공은 당사가 다양한 자회사의 사업을 조정하여, 예상되는 시너지, 성장 기회, 비용 절감을 현실화 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음. 당사가 자회사의 업무를 금융지주회사 구조로 통합하였다고 하여도, 자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진과 조직원을 가진 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 나아갈 것이며 당사가 자회사의 일상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적임.

당사의 금융지주회사 구조가 가질 수 있는 이점 중의 하나는 당사가 전략의 일부로 추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 및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면, 2014년 3월, 당사는 우리금융지주로부터 280십억원을 대가로 국내 상장 소비자금융회사인 KB 캐피탈(구)우리파이낸셜의 기발행 주식의 52.02%를 인수하였음. 또한, 2015년 6월, 당사는 개인 주

주들로부터 651십억원을 대가로 국내 상장 손해보험회사인 KB 손해보험((구) LIG 손해보험)의 기 발행 주식의 19.47%를 인수하였으며, 2015년 11월 KB 손해보험의 자사주를 231십억원에 추가 취득함으로써 KB 손해보험에 대한 당사 지분을 33.29%로 증가시켰음. 최근 2016년 4월에 당사는 공개 상장된 국내 증권중개회사인 현대증권의 기발행주식 22.56%을 현대상선 및 기타 주주들로부터 1,250십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금액은 거래종결시 변경될 수 있음. 당사는 관계법률에 따라 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당사 지분율을 최소 30%로 늘려야 함. 이러한 거래의 종결은 인허가의 취득 및 기타 거래종결 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대증권 주식회사와 KB 투자증권의 합병을 고려할 수 있음. 본문의 “Item 5.A. 영업실적-개관-인수”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당사는 또한 균형 잡힌 성장과 매출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기타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자회사 또는 피투자자의 통합과 향후 있을 수 있는 다른 회사의 통합을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재무, 경영 역량을 필요로 함. 게다가 그러한 과정은 당사의 업무와 IT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당사의 기준·통제·절차·정책 등에 의도치 않은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음. 이는 고객과의 관계 및 주요 구성원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 구조의 예상되는 이점의 실현 및 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수나 합병은 자회사의 다양한 업무 통합의 어려움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제한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의 자금 조달 형태에 제한이 있음.

당사는 자회사 주식의 소유 이외에는 다른 주요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이므로 당사의 자금 조달과 유동성의 주요 원천은 자회사의 배당임. 당사가 유동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자회사로부터의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의 주식거래 및 사채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자회사의 배당은 자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에 달려 있음. 장래에 당사의 자회사가 고수익채권 (high-yield) 또는 후순위채와 같은 채권계약을 맺게 되어 배당에 제한이 가해지고, 그 조건과 국내 관련법규에 따라 당사에 충분한 배당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또한 자회사의 채권자들이 자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당사의 채권자보다 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음. 나아가 당사가 유리한 조건의 주식매매, 자금조달에 실패하게 되면 유동성 등의 재무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낼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영업의 존속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인 당사가 당사 주식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려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함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기본적인 자산은 자회사의 지분임. 당사의 이익배당 능력은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달려있음. 이러한 배당은 상법, 은행법 및 여러 관계 당국에 의해 부과된 자본 기준 등에 의한 감독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음.

당사의 자회사가 장래에 배당을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법규 등의 규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자회사는 당사에 대하여 배당을 중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가 배당을 하는 데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당사 전략의 중요 부분은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당사는 예전부터 이자수익을 주수익원으로 삼아왔음. 당사는 영업전략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을 개발하고자 하지만, 당사가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의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임. 역사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고객들이 부가가치형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 지불에 대한 고객들의 지속적인 거부감은 당사의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영업전략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당사가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한국 금융규제당국의 규제를 받으므로 해당 규제당국이 당사 수수료를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전략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경쟁 전략으로 인하여 고객의 수가 감소하거나 순이자마진이 감소할 수 있음.

당사는 마진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이고, 가능하면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함.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수신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동시에 여신금리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다른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이자율경쟁을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금리에 대한 민감성에 따라 당사의 고객층이 감소될 수 있음. 또한, 당사가 장래 이자율의 측면에서 다른 은행 등과 경쟁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당사의 순이자마진을 감소시키게 될 것임. 이로 인한 당사의 고객층 감소 또는 순이자마진 감소 어느 쪽이든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쟁 관련 리스크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 심화로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마진이 감소할 수 있음.

한국의 금융산업에서의 경쟁은 심화되어 왔음. 당사의 경쟁사인 금융기관들 중 일부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보다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에 비해 더 큰 재무 원천과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함. 당사의 전통적인 주요 영업부문인 가계여신 및 중소기업여신 부문에서의 금융기관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대하였으나 최근에는 가계여신과 중소기업여신에 중점을 두어왔음. 또한,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부문에서의 시장포화상태, 치열한 이자율 경쟁,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 압력, 마케팅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당사의 가계금융 및 신용카드 영업에서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도 있음.

또한 국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선진화된 영업관행의 확립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2015년 하반기에 한국 정부는 상업은행들에게 개인 고객이 손쉽게 특정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 설정을 신규 계좌에 자동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여 개인 고객들의 계좌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금융기관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당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과 자산이 풍부한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단독 또는 다른 국내 금융기관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의 공급경쟁 대열 참여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지배지분 취득 및 이에 따른 2015년 9월 하나은행의 한국외환은행으로의 합병 등을 포함하여 최근 수 년간 국내 금융산업에서 다수의 주요한 M&A 가 이루어졌음. 나아가, 한국 정부의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구 금융지주회사)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일부 자회사들이 다른 금융기관들에 매각되었고, 우리금융지주 자체도 2014년도에 우리은행으로 합병되었음. 향후 금융산업의 합병은 계속되리라고 예상됨. 이와 같은 인수·합병으로 생겨난 일부 금융기관들은 증가된 규모와 영업력을 바탕으로 당사와의 경쟁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음. 심화되는 경쟁과 계속되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마진은 감소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대기업여신 포트폴리오 관련 리스크

당사는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하는바, 재벌의 재무상태 악화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15.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기업 익스포저(대출채권,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지급보증 및 인수 포함) 중 14개 기업 익스포저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국내 41대 재벌에 대한 것임. 2015.12.31. 현재 위 41대 재벌에 대한 총 익스포저 규모는 21,781십억원으로 당사 총 익스포저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당사의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는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가 상기 익스포저에 대해 현재까지 적립한 총당금 규모가 위와 같은 재벌 관련 익스포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또한, 현재 워크아웃 또는 청산절차에 있거나 장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익스포저와 관련하여 장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당사는 구조조정 중에 있거나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 또는 당사가 동의하지 않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채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음.

2015.12.31. 현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한 당사의 대출과 지급보증은 총 700십억원으로서, 이는 당사의 대출 및 지급보증 총액의 0.3%를 차지함. 당사의 위 기업들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은 대부분 손상채권으로 분류됨. 2015.12.31. 현재 위 대출 및 지급보증과 관련한 신용손실충당금은 371십억원으로서, 이는 위 기업들에 대한 당사의 대출 및 지급보증을 53.0%에 해당하나, 위 신용손실충당금은 위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할 수 있음. 한편, 당사는 위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출자 전환을 통하여 당사가 취득한 지분증권 포함)도 보유하고 있는바, 워크아웃이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한 당사의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관련 총 익스포저 규모는 2015.12.31. 현재 52십억원으로서 당사 총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0.1%에 미치지 못하나 장래에 증가할 수 있음. 또한, 워크아웃 대상인 기업고객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의한 채권재조정계획에 따라, 당사는 당사의 여신을 재조정하거나 또는 당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당사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처분해야만 할 수도 있음.

당사 기업 신용 익스포저의 일부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당사의 기업여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음.

2015.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총액은 9,340십억원이고, 당사의 대출 및 지급보증 총액의 3.6%를 차지함. 그 중 최대규모의 단일차주는 KEB 하나은행으로 845십억원 규모임. 이는 대부분 외화표시 대출의 형태로서 당사의 대출 및 지급보증 총액의 0.3%에 해당되며, KEB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채무증권의 형태로 279십억원의 추가적인 신용 익스포저를 가짐. 만약 당사가 여신을 공여한 대기업차주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당사는 적지 않은 금액의 총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고,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당사의 영업 관련 기타 리스크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어려운 상황은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내외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함.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남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등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 닥친 재정 위기와 중국 및 주요 신흥국의 경기 침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기타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추측에 따른 금리 변동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을 포함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함. 세계 경제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진행사항은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당사는 또한 당사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와 구조화 상품들을 포함한,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및 한국 금융시장의 부정적 변화 및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최근 전세계 및 한국의 부정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당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및 외국 회사의 주가를 포함한, 주가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등락을 거듭해 오고 있음. 이러한 변동성은, 당사가 2008년 취득한 카자흐스탄 은행인 JSC Bank CenterCredit 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포함하여, 당사의 단기매매 및 투자증권 포트폴리오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나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된 당사의 투자에 관한 손상차손을 초래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Item 4.B.사업의 개황-자본시장업무와 국제금융-국제금융”을 참조.

당사에 대한 소송 등은 당사의 사업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및 행정규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평판 악화와 금전적인 손해배상, 민·형사적 책임부담, 당사 임직원 및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노출될 수 있음.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증권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의 3개월물 예금증서의 금리 고정에 대한 담합 혐의를 조사하였음. 이는 2012년 12월 은행대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금리가 도입되기 전까지 은행 대출에 대한 기준금리로 사용됨. 2016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KB

국민은행을 포함하는 6개 상업은행에 송부하였고 각 은행은 2016년 4월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면 2016년 5월에 심리를 거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됨.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 KB 국민은행은 대출 고객 등 기타 당사자로부터 추가적인 청구 및 소송을 당할 수 있음. KB 국민은행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할 예정이고 불리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대해 법원에 불복할 수도 있으나 최종 판정 방향 및 추가적인 법원 심사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당사는 그 결과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의 잠재적 손실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2월 금융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에 KCB의 직원이 다수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KB 국민카드의 신규 신용카드 발행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음.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다수의 피해 고객이 KB 국민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추가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Item 8.A. 연결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를 참고하기 바람.

당사는 이러한 소송 및 행정규제 등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진행 중 청구 범위와 청구 총액도 증가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소송 등의 최종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경우 당사에 대한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또는 향후에 제기될 소송 및 감독기관의 제재 등에 관한 최대 잠재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행정규제가 당사에 불리하게 결정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위험과 손실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당사는 다층화된 리스크관리구조,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과 그 밖의 관리 구조를 아우르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환경을 통해 리스크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관리 전략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Item 11.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정보” 부분 참조.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리스크관리 전략·기술과 그에 따른 판단은 모든 시장 환경의 경제적·재무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 시장의 움직임에 기초한 리스크관리의 전략과 기술은 중대한 시장 부담과 그 밖의 예측불가능한 환경에서 효율성이 제한될 수 있음. 나아가 유동성이 저하된 환경에서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당사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 조건을 다루려 할 수 있으므로, 당사의 리스크관리전략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당사는 다른 국가와는 다를 수 있는 내용의 한국 기업지배구조 및 공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

당사는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SEC에 등록되고 NYSE(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당사는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를 포함한 NYSE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사베인즈-옥슬리 법이나 NYSE 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요건의 일부를 면제받고 있음. 당사와 같은 한국 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의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에 비하여 미공개 정보의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음. 위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및

정보 공개 범위의 차이가 일부 지역의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또는 공시로 인식될 수 있음.

당사의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의 하락과 담보가치의 충분하지 못한 실현은 당사의 여신 포트폴리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 대출의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으나, 부동산의 가치는 최근 수년간 큰 변동을 겪었음. 당사는 대출한도를 담보감정가의 최고 40~80%까지로 제한(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당사가 대출한도를 담보감정가의 40~60%로 제한하는 경우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담보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일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떨어뜨렸음. 장래에 부동산가격이 더욱 하락한다면, 부동산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당사 담보부대출의 미회수금액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수 있음. 부동산 및 기타 담보가치가 장래에 더욱 하락할 경우 또는 담보가치 하락 시에 추가 담보 설정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로 인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음.

한국에서 담보물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법원의 사법절차와 관계당국의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음. 당사로서는 담보권 실행절차의 지연과 담보권의 대항력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완전한 실현을 장담할 수 없음. 담보물의 기대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국내 회사채 유통시장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을 매각할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할 수 있음.

2015.12.31. 현재 당사는 당사의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다만,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예금보험공사 및 중소기업은행은 제외)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이들의 총 장부가치는 15,791십억원임. 위와 같은 증권은 시가는 장래의 이자율 상승 또는 채권 발행회사나 국내경제 전반에 걸친 재무상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하락될 수 있음.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로 손상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에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음. 국내 회사채 유통시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재무상태표상 보유증권의 시가는 국내 신용평가 기관들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제시한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가격은 당사가 실제로 매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가격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당사는 보유증권을 매각하는 시점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따라서 당사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

당사는 원본보전신탁계정의 손실을 일반은행계정으로부터 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영업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자회사인 KB 국민은행을 통하여 금전신탁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 국내 관련법규 하에서

은행의 신탁계좌 자산은 은행의 일반영업자산과 분리하게 되어 있음. 이렇게 분리된 자산은 은행의 예금주 혹은 기타 일반적인 은행 업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없음. 당사는 일부 신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또는 투자원금과 고정금리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음.

원본보전신탁계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보전약정금액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은 신탁계정 관련 특별유보금, 해당 신탁계정에서 나오는 당사의 수수료 및 당사의 일반은행계정에서 전입된 자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충당됨. 2015.12.31. 현재 당사는 원본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계정 자산에 99십억원의 특별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음. 2013년, 2014년 및 2015년도에 원본보전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은행계정으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없으나, 장래에는 원본보전신탁계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계정으로부터 전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업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및 기타 기술적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앞으로도 노출될 수 있음.

새로운 기술의 보급 및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화함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당사의 활동은 사이버 보안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노출될 수 있음. 당사의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는 당사 IT 시스템에 장애, 지연 등 또는 기타 문제나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기타 악성코드, 데이터 손실 또는 파괴(고객의 기밀정보 포함), 비인가 접속, 계좌 해킹 또는 기타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영향을 받음. 고객 서비스, 빌링, 보안 절차, 기밀 및 기타 정보의 전송 및 보관, 대규모 복잡한 거래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당사 일상적인 업무의 대부분 비중이 IT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 당사는 사이버 위험 및 기타 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 및 시스템 설치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조치 또는 그 어떠한 조치도 보안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음. 또한, 사이버 공격 방법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 전까지 인식조차 힘든 경우가 있어서 당사가 효과적으로 사전 조치를 하거나 적극 대응을 하기 힘들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사이버 공격 위험은 사람의 실수, 우연한 기술오류, 또는 당사가 함께 거래하는 제3자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모든 손실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음. 사이버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 고객의 기밀정보 유출, 고객 사이 및 시장에서의 당사 평판 훼손, 고객 불만, 추가적인 비용 발생, 법적 규제, 소송 기타 당사 및 당사 고객들에 대한 금융 손실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사업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동성과 자본관리 관련 리스크

이자율의 상당한 상승은 당사 채무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하락 및 자금조달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편, 대출수요 감소 및 차주들의 상환능력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자율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호전된 성장전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2010년과 2011년에 점진적으로 정책금리를 3.25%까지 총 125bp 인상함. 그러나 한국 성장 둔화와 전세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자 경기 부양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련의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하여 정책금리를 2.00%까지 인하

하였음. 2015년,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우려와 중앙은행들이 이자율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유레없이 1.50%까지 추가 인하하였음. 모든 사항이 동일하다면, (시장)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당사가 보유중인 채무증권의 장래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이자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당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키고, 반면에 대출 수요, 특히 가계소비자의 대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 따라서 당사는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잠재적 불일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부채를 조정하여야 할 수 있음.

이자율 상승은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당사 신용카드 고객을 포함한 기업고객이나 개인고객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당사 여신포트폴리오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음. 가계 및 기업대출의 이자율은 대부분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지속적인 금리 상승은 당사의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들의 이자비용을 높여 그들의 대출금 상환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자금조달은 단기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일차적으로 고객예금으로 구성되는 단기자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2015.12.31. 현재 당사 예금의 약 94.4%가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예금이거나 요구불예금으로서, 과거에는 고객예금의 대부분이 만기 시 재연장 되었지만 장래에도 이러한 만기의 재연장이 계속될 지 여부는 당사로서는 장담할 수 없음. 따라서 단기예금 고객의 상당수는 수익성이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하거나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유동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당사가 영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보다 고비용의 장단기 자금조달원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재무상태-유동성” 참조.

당사는 자본적정성비율이 감소하거나 장래에 해당 자본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당사는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전혀 추가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음.

금융위원회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의하면,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KB 국민은행은 연결기준으로, 2015.1.1.부터 보통주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I) 4.5%, 기본자본(Tier I)비율 6.0% 이상과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을 합한 총자본비율 8.0% 이상을 유지해야 함. 2015.12.31. 현재 당사의 보통주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I), 기본자본(Tier I)비율,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을 합한 자기자본의 비율은 각각 13.47%, 13.59% 및 15.48%였으며, KB 국민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I), 기본자본(Tier I)비율,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을 합한 자기자본의 비율은 각각 13.74%, 13.74% 및 16.01%인데,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임. 그러나, 앞으로 당사의 가계대출(신용카드채권 포함) 및 중소기업대출의 자산건전성 악화를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당사의 자금을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의 자본구조 및 자본비율이 악화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의 현 자본적정성요건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09년 처음 도입하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바젤 III 라고 명명된 새로운 일련의 은행 자본관련 조치에 기반함. 2013년 7월 금융위원회는 바젤 III 를 도입하는 일련의 규정 변경을 발표,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 및 금융지주회사들은 2013.12.1.부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대손준비금 차감 후 이익잉여

금 등)의 비율을 최소 3.5% 이상,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Tier I)의 비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규제 비율은 2014.1.1.부터 각 4.0%, 5.5%로 상향되었고, 2015.1.1.부터 각 4.5%, 6.0%로 상향됨. 이러한 규제는 기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Tier I) 및 보완자본(Tier II)(자본공제항목 제외)에 대한 최소비율 8.0% 규제에 추가되는 것임. 개정된 규제체계에 따라, 2016년 0.625%에서 2019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와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가 분기 단위로 결정하는 최고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를 적용 받음. 또한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2016년 5대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 선정되어 2016년 0.25%에서 2019년 1.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추가 자본 규제를 적용 받음. 한국에서 바젤Ⅲ의 시행은 당사를 포함한 한국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보다 엄격한 자본적정비율 및 기타 규제 요건의 준수를 위하여 장래 추가 자본 확충이 요구될 수 있으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할 수 있음. 당사의 자본 확충 능력은 한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 은행들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자본 조달을 시도하는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만일 장래에 자기자본비율 및 기타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경고부터 영업 정지나 인가 취소 등의 처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관하여는 “Item 5.A. 영업실적-개관-신 BIS 협약” 및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재무상태-자본적정성” 참조.

정부의 규제 및 정책 관련 리스크

정부는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부문의 차주들에 대하여 한국금융산업의 대출 및 금융지원을 촉진시킬 수 있고, 당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이를 따를 수 있음.

정부는 과거에도 특정 분야의 차주에 대한 한국금융산업의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를 장려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 있음. 정부는 진흥하고자 하는 특정 경제부문을 지정하고,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수 있음. 정부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할 의도로 위와 같은 정책자금대출을 제공한 바 있음.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되는 모든 대출 및 여신은 당사의 신용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됨. 다만, 이와 같은 정책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사는 특정 부문에 여신을 제공하거나, 만약 그와 같은 정책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제공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여야 할 수도 있음.

과거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예를 들면, 2008년 하반기부터의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태와 유동성이 저하되고,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한국 경제 상태가 계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과 가계차주에게 금융 지원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치들을 발표함. 당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으며, 위 고객들의 재무상태 악화는 당사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당사를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국내경제의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 또는 다른 형태의 금융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위와 같은 금융지원의 결과로 비용과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금융위원회는 당사 또는 자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가 당사 혹은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 혹은 자회사가 최소 자본적정성 또는 유동성 비율과 같은 감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영업양도, 자산의 매각, 영업소 또는 자회사의 폐쇄,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및 영업 일부의 정지와 같은 조치를 요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음.

만일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요구 또는 명령이 있다면, 당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손해를 미칠 수 있음. 또한 만약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부분 감액을 명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해를 볼 수 있음.

국내 상황 관련 리스크

북한과의 긴장고조는 당사의 영업과 당사가 발행한 ADS의 시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남북한 관계는 항상 긴장상태에 있어 왔으며, 그 긴장의 정도는 장래의 사건들로 인하여 갑자기 변동될 수 있음.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장래 북한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불안과 이러한 요인이 이 지역의 경제 및 정치적 안정성에 가지는 영향에 관한 우려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였으나 이러한 권력승계체제의 중국적인 결과는 확실하지 않음.

또한,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안보 문제 또한 고조되었음. 중대한 관련 사건들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 실험을 해왔고 가장 최근인 2016년 2월에는 미국과의 합의 및 유엔 제재에 반하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음.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로켓 발사 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
- 북한은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포기하고 2006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 핵실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의함. 2016년 1월, 북한은 첫 번째 수소폭탄 실험을 동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네 번째 핵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수소폭탄과 관련된 주장의 신빙성은 확인된 바 없음. 이러한 실험에 대응하여 (그리고 북한의 2016년 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만장일치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현저히 강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2015년 8월, 2명의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근방의 지뢰 폭발로 부상당함. 한국군은 지뢰가 북

한에 의해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무장지대에 확산기를 이용한 대북방송을 재개함.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북한군은 확산기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여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름.

- 2013년 3월, 북한은 한국에 대하여 “전시상황”에 돌입하였고 1953년 휴전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에 대한 추가적 재제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보임.
- 2010년 3월, 한국의 군함 1척이 수중 폭발에 의하여 침몰하면서 많은 선원이 사망하였음.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적으로 지목하였으나 북한은 책임을 부인함. 2010년 11월, 북한은 한국과 북한의 사실상 해상 국경선으로 간주되는 서해안북방한계선 근처에 위치한 한국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음. 한국정부는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북한을 비판하고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보복할 것이라고 대응함.

북한 경제는 또한 북한 내부의 사회적 및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 수준이 장래에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북한의 지도부의 위기로 인한 긴장 고조,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결렬, 군사적인 적대행위 등은 한국 경제,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 실적 및 당사의 보통주와 ADS 의 시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내 금융 및 경제상황의 악화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한국에서 설립되었고, 모든 실체적 업무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국의 정치, 경제, 법적, 규제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경제지표들은 경기회복과 불확실성이 복합된 징후를 보였고, 장래 국내경제의 경기회복이나 성장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음.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부정적 상황과 변동, 유가와 물가의 변동, 미국과 세계 경제의 일반적인 약화는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에 일조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 경제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세계 주요 통화 및 특히,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변동함. 자세한 내용은 “Item 3.A. 요약재무제표 - 환율” 부분 참조. 나아가 한국과 세계 경제의 악화로 한국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변동하였음. 장래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의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의 대량 매각과 투자금 회수가 발생한다면 원화 가치와 한국의 금융기관의 외환보유고, 한국 기업들의 자본 조달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장래에 한국과 세계 경제의 침체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장래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일부 국가들의 국가채무위험 증가와 그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악영향;
- 외환보유고, 물가(유가 상승 포함), 환율(미국달러화, 유로화 또는 일본엔화의 변동, 중국 위안화의 절상 포함),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주식시장의 부정적 변화 또는 심한 변동;
-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및 아시아 등의 신흥개발도상국 등의 경기 불황 지속;

- 한국 부동산 시장가격의 추가 하락;
- 가계 부채의 지속적 증가 및 개인 고객 또는 중소기업 고객들의 연체 및 부도율의 증가;
- 소비자 신뢰의 감소와 소비자 지출의 침체;
- 저축은행부문을 포함한 한국의 금융분야의 어려움;
-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이익(대중 수출의 증가 등)을 초과하는 비용(수출시장 등에서의 경쟁의 심화 등)의 증가,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 사회불안 및 노동시장불안;
- 세수의 감소와 실업급여보상, 기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확대, 이로 인한 정부재정적자의 증가;
- 재벌 또는 다른 대규모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절차미흡 및 금융문제;
- 일부 재벌의 기업회계부정 및 기업지배구조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 신뢰도 상실;
- 한국에서 노령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또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생산성의 감소;
- 현재와 장래의 자유 무역 협정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정학적 불안과 전세계 테러 집단에 의한 추가 공격 위험성;
- 한국이나 그의 주요 교역국에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해;
- 최근 국내 메르스 발병과 같은 국내외 심각한 전염병 발생;
- 영토 또는 무역분쟁이나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으로 인한 무역상대국 또는 동맹국과의 경제, 외교관계의 악화;
- 국내 정당들 사이 또는 정당 내부의 정치적 불안 또는 정쟁의 격화;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산유국가와 관련한 정치 사회적 적대행위나 긴장 및 전세계 원유 공급 차질 또는 유가상승;
- 북한과 한국 및 미국간의 긴장감 증가 또는 적대행위 발생;
- 한국 금융감독규정의 변경;

당사의 영업은 국내 노동시장의 불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국내의 경기침체 또는 회생과 파산의 증가는 해고와 높은 실업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높아지고 실업급여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2013년에 3.1%에서 2014년에 3.5%, 2015년에 3.6%로 증가함. 향후 실업률 상승과 고용시장 불안은 당사 고객의 영업활동이나 대출금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당사의 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이러한 전개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의 보통주와 ADS 관련 리스크

당사나 당사의 주요주주는 당사의 보통주나 ADS 를 장래에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보통주 및 ADS 의 시장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당사에 대한 투자 및 상대적인 소유비율을 희석시킬 수 있음.

당사는 현재 보통주, ADS 나 해당 증권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전환 가능한 주식들을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당사는 장래에 해당 증권에 관해 공모를 시행하거나 매각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 추가적으로, 당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은 2015.12.31.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2%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주식을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음.

당사가 보통주, ADS 나 해당 증권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전환 가능한 증권을 미래에 공모 또는 매각하거나, 주요주주가 당사의 보통주를 상당 부분 매각하거나, 해당 공모나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중들 사이의 인식은 당사의 보통주 및 ADS 의 시장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추가적으로, 당사가 미래에 해당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당사에 대한 투자 및 상대적 소비비율을 희석시킬 수도 있음.

보통주의 소유권은 국내법에 의한 제한을 받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그 계열사들과 함께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또한, 2014년 2월 14일에 발효된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 동일인 및 그 계열사들이 함께 보유하는 당사 보통주(미국예탁주식이 표창하는 보통주도 포함)의 총수가 법령상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주주에게 최대 6개월 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음. 이러한 명령 위반 시에는 처분하는 날까지 매 1일당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0.03%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비금융주력자는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더 이상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나, 다만,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Item 4.B. 사업의 개황-감독 및 규제-금융지주회사에게 적용되는 주요규정-금융지주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제한”을 참조.

당사의 ADS 보유자들은 당사의 ADS 를 원주로 전환하여 직접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음.

당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및 타사와의 합병 등의 특별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국내 관련법규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ADS 보유자는 주식예탁기관이 이를 거절한다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다만, ADS 보유자들은 그와 관련된 거래들이 승인될 주주총회 기준일 전에 ADS 를 원주로 전환하여(전환에 따른 비용은 주주가 부담함), 직접주주의 지위를 취득해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ADS 보유자는 보통주의 예탁이나 인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당사의 주식예탁계약에 의하면, 보통주 주주는 주식예탁기관의 국내 보관기관에 보통주를 예탁하고 ADS 를 인수할 수 있으며, ADS 보유자는 주식예탁기관에 ADS 를 반납하고 보통주를 인출할

수 있음. ADS의 발행(ADS의 공모와 ADS에 대한 이익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포함)을 위하여 당사가 예약하였거나 예약을 승인한 보통주의 총수와 주식예약기관의 명의로 국내보관기관에 예약한 보통주의 수 사이의 차이를 초과하는 보통주에 대하여는, 당해 예약에 대하여 당사가 동의를 하거나 국내 법령상 당사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예약을 할 수 없음.

당사의 주식예약계약에 의하면, 만약 보통주가 주식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또는 보통주의 종류 변경 등을 통하여 취득된 것이라면 당사의 동의가 불필요함. 당사는 주식예약계약에 따라 예약 후 수시로 당사가 결정하는 일정 수(단, 100,000,000주 미만이 될 수 없음)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의 예약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음. 당사는 추가적인 보통주의 예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ADS 보유자가 ADS를 반납하고 보통주로 전환시킨다면, 다시 ADS를 교부 받기 위해 보통주를 예약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ADS 보유자는 신주인수권을 갖지 못할 수 있음.

상법과 당사의 정관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주가 발행될 때마다,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수의 비율로 보통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있음. 주식예약기관은 ADS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신주인수권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1) ADS 보유자들에게 유상증자에서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충분한 증빙을 당사로부터 적시에 수령하고, (2) (i) 당사가 그러한 주식에 관련하여 1933년 미국 증권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거나 (ii) 또는 그와 같은 유상증자가 미국 증권법에 따른 등록의무를 면제받거나 등록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예약기관이 당사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ADS 보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한편, 당사는 미국 SEC에 어떠한 종류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와 같은 등록신청서의 효력 발생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나아가, 미국 증권법에 따른 등록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이에 따라, ADS 보유자는 당사의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보유주식 지분비율이 희석(dilution)될 수 있음. 만약 당사 ADS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가 요구되나 당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ADS 보유자는 추가적인 ADS의 취득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희석될 수 있음. 만약 주식예약기관이 행사되거나 배정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러한 처분이 적법·이행가능하지 않은 경우, 주식예약기관은 당해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도록 할 것이며, 이 경우 보유자는 당해 신주인수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것임.

ADS 보유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ADS 매각대금은 미달러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당사의 보통주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원화로 호가되어 거래됨. ADS에 대한 현금배당금은 주식예약기관에 원화로 지급되고, 이후 주식예약기관에 의해 일정요건에 따라 미달러화로 환전됨. 미달러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은 ADS 보유자가 주식예약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ADS 보유자가 ADS를 교부하고 인출한 보통주 매매대금의 미달러화 가치 및 ADS의 유

통시장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환율변동은 보통주 주주가 받는 배당금과 주식매매대금의 미달러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가 발행한 ADS의 시장가치는 국내증권시장의 상황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당사의 보통주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국내의 증권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증권시장보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으며 변동성이 큼. ADS의 시가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보통주 거래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은 상장주식 매매가격과 매매수량의 변동에 대한 상당한 변동을 경험한 바 있고, 그에 따라 고정된 범위로 일일 주가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음. KOSPI는 2007.12.31. 1,897.1에서 2008.10.24. 938.8로 하락하였음. KOSPI는 2016.4.22. 2,015.5을 기록함. 한국 기업의 주식 가격이 미래에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 선진국의 주식시장을 포함한 여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주식시장은 시장조작, 내부자거래와 결제제도상의 문제점을 경험한 바 있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게 된다면 국내와 국제시장에서 국내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당사의 보통주와 ADS를 포함)의 시가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과거에도 때때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음. 정부는 특정산업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을 유도하고 사기업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공모를 장려하기도 하였음. 이와 유사한 조치가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내주식시장의 침체와 활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부의 조치(또는 그러한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 또는 중단되리라는 예상과 인식을 포함)는 국내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시가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의 보통주와 ADS의 시가 및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예상한다면, 정부는 당사의 ADS 보유자와 주식예탁기관이 배당금 등을 미달러화로 환전하거나 지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만약 한국 정부가 국내 또는 국제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국제수지안정 및 기타 거시경제 정책 실행에 대한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급정지 또는 거래 시 정부당국의 사전승인과 같은 외국환거래법상 제한을 부과 할 수 있음.

ADS 보유자는 당사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당사는 대한민국 국내법상 주식회사로서, 원문에 기재된 당사의 모든 이사와 임직원은 본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과 당사의 자산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 소재하고 있음. 그 결과, ADS 보유자들에 의한 당사와 당사의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서류송달 또는 그들과 당사에 대한 미국연방유가증권법의 책임조항에 의한 미국법원의 판결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미국연방유가증권법의 책임조항을 근거한 민사 책임 판결 혹은 미국법원의 판결 등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음.

Item 4. 회사의 개황

Item 4.A. 회사의 연혁과 발전

전체 개황

당사는 2008.9.29. KB 국민은행과 그 자회사 등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로 설립 되었음. 당사의 설립근거법령인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규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신용카드회사 및 증권회사 포함)들은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조직 및 경영될 수 있음.

(구)국민은행의 연혁

(구)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의해 1963년 설립되어 일반 국민 및 중소기업에게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94년 9월 기업공개를 시행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1995년 1월 국민은행법이 폐지되어 (구)국민은행은 특수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대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됨. 기타 원문의 (구)국민은행의 연혁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주택은행의 연혁

주택은행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주택을 구매하도록 장기 및 저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고, 저금리의 여신을 건설회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을 증진하기 위해 1967년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됨. 주택은행은 1997년까지 비주택자금대출 이외에도 10년 이상 만기의 주택자금대출 및 신규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관련 계좌를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었음.

주택은행은 1999년 7월 ING 그룹의 계열사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ING 그룹은 주택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9.99999%인 9,914,777주를 취득하게 되었고, 2012.12.31. 현재 연결자회사인 ING Bank N.V.를 통하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5.02%를 보유하고 있음. 2013년 2월 ING Bank N.V.은 당사 지분 전량을 매각함. 기타 원문의 주택은행의 연혁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구)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원문의 (구)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KB 금융지주의 설립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KB 국민은행의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였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한 주당 63,293원이었음. KB 국민은행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38,263,249주를 매수하였음. 주식이전 전에 KB 국민은행은 자사주매입을 실행하였는데 그에 따라 16,840,000주를 매입하였음. 결과적으로 KB 국민은행은 당사 주식의 73,607,601주를 주식인수를 통하여 받았으며, 이후 전량 매각하였음.

기타 원문의 KB 금융지주의 설립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KB 금융지주의 설립 부분은 사업보고서 I.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4.B. 사업의 개황

사업: 첨부 표8)

당사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 총액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금융지주회사 중의 하나이며, 당사의 영업은 주요 상업은행 중 하나인 KB 국민은행을 포함함. 당사의 자회사들은 은행, 신용카드, 자산운용, 생명보험, 자본시장업무 및 국제금융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5.12.31. 현재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29조원의 자산 총액, 224조원의 예수부채 및 29조원의 자기자본 총액을 보유하고 있음.

당사는 한국법상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2008년 9월 설립됨. 이에 관해서는 “Item 4.A. 회사의 연혁-KB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참조하기 바람.

당사는 자산측면에서, 가계 및 중소기업에게 신용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적은 규모로, 대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 당사는 예금과 관련하여 가계 및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예금 상품부터 관련 서비스를 전부 제공함.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KB 국민은행을 통해 제공됨.

당사의 핵심적인 가계 및 중소기업관련 업무는 고객들의 접근성 및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15.12.31. 현재 1,138개에 달하는 은행지점은 한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중의 하나로서 당사의 사업에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며 경쟁력의 주된 원천임. 당사의 영업망은 대규모의 안정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자금조달방식을 제공하며, 당사의 고객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당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당사의 지점 네트워크는 자동화 은행기기,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강화됨. 2015.12.31. 현재 당사는 한국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약 30.5백만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음.

당사의 대출업무의 주요 구성에 대해서는 표8)을 참조. 2015.12.31. 현재 당사의 가계대출, 신용카드 대출 및 신용카드채권은 총 여신 포트폴리오의 55.1%에 해당함.

당사는 주택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전 범위의 가계대출상품 및 가계금융서비스를 제공함. 당사는 주택자금대출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민간은행임.

중소기업대출은 대출 및 고객 유형에 따라 당사의 비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광범위한 영역의 한국기업에 관한 다양하게 분포된 익스포저를 구성하고 있음. 그 중 한 유형은 중소기업 중 가장 규모가 작은 SOHO 기업에게 공여된 담보부대출임. 중소기업에게 공여된 대출규모를 고려할 때 당사는 고객 중심의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의 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당사의 지점 네트워크는 이러한 전략에 기여함.

당사는 대기업 고객에게 수수료 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해당 고객과의 양질의 관계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할 것임.

(구)국민은행이 1980년에 국내신용카드의 발급을 시작한 이래로, 당사의 신용카드사업은 국내의 신용카드 사용이 가속됨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급속히 성장함. 2011년 3월, 당사는 KB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였음. 그 결과,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KB 국민카드가 당사의 신용카드업을 운영하고 있음. 2015.12.31. 현재 약 18.5백만명이 KB 국민카드 발행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

전략

원문의 전략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원문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였음. 다만, 원문의 전략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1.사업의 개요(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당사의 전략적 초점은 아시아금융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는 것임. 당사는 한국의 선도 은행으로서의 시장 점유를 굳히고,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영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임.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음.

금융지주회사 체제하의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과 자회사들간의 시너지 극대화

국내 금융시장은 과거에도 그랬듯 국내외 경기 변동과 한국 노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스마트폰 보급,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 발전 및 은행부문의 하이테크 “스마트 금융” 유행으로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사는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그룹 CRM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룹통합 우대고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또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하여 폭넓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법률을 준수한 고객정보 공유를 통한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통합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집중화된 자본관리 등이 가능해졌음.

핵심 고객분류를 통한 타겟 마케팅 및 이를 통한 양질의 고객가치와 서비스 제공

최근 당사는 성장과 수익 잠재력이 뛰어난 특정 시장부문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또한 핵심 고객군을 분류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타겟 마케팅을 실행함으로써 이들 고객군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임. 특히 보다 향상된 고객관계관리(CRM) 방법을 통하여 고객자산보유자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량 고객에 대한 당사의 지갑점유율(wallet share)을 증가시켜 나갈 것임.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당사는 4개의 자회사 KB 국민은행, KB 투자증권, KB 생명보험 및 KB 국민카드를 통하여 KB Star Club 이라는 “우대 고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위 4개의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KB Star Club 고객을 선별 및 분류하고 분류 방식에 따라 이자율이나 거래 수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고객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함. 당사는 또한 전용 브랜드 “Gold & Wise”를 통해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의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고객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가계금융분야에서 당사의 수익성 증대와 탄탄한 입지에 기여함.

또한, 당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수수료 기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량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해 나갈 것임. 당사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은 고객분류에 의한 각 고객군별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예금상품,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고도화된 형태의 복합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업점 네트워크 중 하나인 당사 영업점망을 통하여 이러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판매전략을 개발함으로써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당사의 주요 고객관계 전략 중 하나는, 당사의 고객에게 보다 큰 가치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당사는 향상된 고객관계 관리기술과 지정망, 자동화기기(ATM), 콜센터,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당사의 기업대출영업에 있어서 여신의 질 강화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기업금융서비스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 높임

당사는 최상위권 기업들과의 거래를 유치하고 맞춤형 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기업대출에 집중하여 기업금융시장의 선도적인 서비스업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자 함. 기업금융시장에 있어서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는, ①보다 균형 있고 강화된 포트폴리오의 구성, ②높은 마진과 낮은 리스크의 금융상품 등 다양한 기업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 ③투자은행서비스 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 외환거래,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을 통한 대기업 고객들로부터의 보다 많은 수수료수익의 창출, ④기업고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 네트워크의 향상 등에 전략적 초점을 맞춤.

내부 리스크 관리능력의 강화

당사는 효과적인 여신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당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바, 리스크 관리는 당사의 주요 전략분야 중 하나임. 당사는 내부 리스크 관리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①선진 신용평가기법에 따른 승인절차의 강화, ②내부적인 법규준수정책 개선과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업무매뉴얼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시행하고 있음.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성과주의 및 고객지향적 문화의 형성

당사는 핵심 전문가들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내연수 프로그램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 직원들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함. 또한 당사는 당사 직원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각자의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적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음. 당사는 모든 사업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음.

가계금융

원문의 가계금융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당사의 가계금융은 대출업무와 예금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원문의 가계금융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대출업무 : 첨부 표9)

가계대출(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타 가계대출)의 잔액과 가계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첨부 표9) 참조.

당사의 가계대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고객이 주택을 구매, 건설, 개량 또는 임대하는 자금을 조달하도록 제공되는 주택자금대출 및 대출상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 고객의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당사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당좌대출 또한 제공함.
-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고객에게 공여된 기타 가계대출. 상기 대출은 고객이 요구불계좌로부터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가 정한 최대 한도까지 해당 부족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 공여되는 당좌대출을 포함함.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담보부대출의 경우, 당사의 정책은 조정된 담보가치의 최대 100%(정부가 투기위험이 높은 분야로 지정하여 당사가 담보감정가의 40%에서 60%로 대출을 제한하는 분야는 제외)에서 당사의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기타 담보가치를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하는 것임. 부동산을 위한 조정된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당사는 일반적으로 40%에서 80%(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0%에서 70%)사이의 비율에 의한 담보감정가를 사용함. 이 비율은 부동산의 위치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며, 부분적으로는 인근 부동산의 법정 경매 가격을 고려하여 설정됨.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첨부 표10)

원문의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12.31. 현재 당사 주택자금대출의 약 68.2%는 대출의 대상인 주거용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고, 약 19.9%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보증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1.9%는 무담보임. 또한 2015.12.31. 현재 당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초기 LTV 비율은 약 51.9%로서,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 이유로는 평균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전세제도, 담보목적물 평가가치의 일정 부분만을 담보로 인정하는 것 등이 있음.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IFRS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2.4에 명시된) 대출관련 신용평가등급 내부가이드라인에 따른 분류에 관해서는 표10) 참조.

당사의 주택담보대출은 2순위 담보 대출을 포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행하는 여신심사에 추가하여 당사는 2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당사의 담보권보다 앞서는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대출 가액과 현황을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2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절차를 거침. 금융감독원 규제에 따라 당사의 주택담보대출은 40%에서 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즉, 특정 항목 담보물로 담보되는 1순위 및 2순위 대출을 포함한 대출 원금 총액의 담보감정가치에 대한 비율)이 적용됨. 이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당사는 조정된 담보가액(즉, 요구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만큼 할인되는 담보가액)에서 당사의 담보권보다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음. 따라서, 당사의 담보권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가액을 확실히 하고 대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는 해당 소유권 및 담보권 설정 문서, 은행 대출서류 및 확인서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여신심사작업을 수행함. 또한, 당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른 특정 유형의 주택으로 담보되는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산정을 위하여 (“감독 및 규제 -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주요 규정 - 소매가계대출과 관련되는 규정” 참고) 당사는 당사 담보권 설정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가액을 위하여 2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추가 조정을 함.

주택담보대출을 공여한 후 당사는 전국은행연합회 연체대출채무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당사 2순위 담보대출 채무자들의 1순위 담보대출의무 준수를 포함하여 당사 대출채무자들의 다른 대출 채무 이행 준수 여부를 감시함. 만일 국내 어느 채무자가 금융기관 원리금 지급 의무(저당권, 주택지분, 기타 소비자 및 신용카드 대출 포함)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동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데이터베이스상 연체채무자로 등록되며, 당사는 이를 매일 모니터 함. 이 데이터베이스로 공개되는 정보에는 연체금액, 연체채무자 신원과 해당 대출기관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당사의 지정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동 채무자들에 대하여 조기에 경고하면, 대출업무 담당자는 연체 채무자의 기존 대출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방 및 구제 조치들(필요한 경우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가 담보 제공 요구 등)을 취함. 1순위 담보 대출 불이행 발생시 2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당사의 잠재적인 문제여신 또는 부실대출로 처리함. 구체적으로 1순위 담보 대출상 불이행이 발생하면 당사는 2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검토하여 동 대출 건을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재분류함. 2순위 주택담보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만일 해당 1순위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원금이 15백만원 미만인 경우 2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잠재적으로 문제 여신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함. 만일 해당 1순위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원금이 15백만원 이상이거나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하여 저당물회수권상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 2순위 주택담보대출의 예상회수금액을 “고정”으로 나머지 부분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함.

-이자율 결정

당사 가계 주택자금대출의 이자율은 주기적 변동금리(당사의 시장조달금리(Market Opportunity Rate system)를 사용하여 도출된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 만기의 기준금리에 근거함)에 일반적으로 근거함. 2015.12.31. 현재 당사의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준 금리는 각 1.67%, 1.68% 및 1.72%임. 2015.12.31. 현재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금 중 약 71.1%는 변동금리에 의하여 결정됨.

기타 가계대출

기타 가계대출은 원칙적으로 무담보이나, 부동산, 예금, 증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도 있음.

2015.12.31. 현재 당사의 가계대출금(다만,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제외) 총액 중 약 52.0%, 18,891십억원이 무담보대출임. 또한 한도대출 총액은 2015.12.31. 현재 약 7,546십억원임.

-이자율 결정 : 2015.12.31. 현재 당사의 기타 가계대출의 97.4%는 시장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한 변동금리가 적용됨. 당사의 기타 가계대출의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나, 무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당사의 여신승인절차에서 결정된 고객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결정됨.

예금수신업무

원문의 예금수신업무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예금수신업무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가계금융고객의 예금잔액은 2013.12.31. 현재 132,733십억원, 2014.12.31. 현재 138,246십억원, 2015.12.31. 현재 146,630십억원으로서, 당사 예금 총액의 각 66.1%, 65.3% 및 65.4%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고객 개개인의 재무상태나 특성, 수요에 따라 다양한 예금상품(예를 들면, 요구불예금, 정기적금·예금, 양도성예금, 외화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제공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은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예금주들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은행예금의 상황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금보험제도는 각 예금주에게 각 은행당 최대 50백만원까지 보증하고 있음.

신용카드: 첨부 표11)

원문의 신용카드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신용카드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당사는 신용카드부분의 위험 관리 및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당사의 신용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신용카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당사의 기존 고객에 대한 신용카드의 교차판매 강화, 축적된 금융서비스 제공, 각종 사은 프로그램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실행하고 있음.

2012년 하반기부터 당사는(KB 국민카드를 통하여) SK 텔레콤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팩토링(factoring) 사업을 시작함. 2015.12.31. 현재 팩토링 채권 규모는 2,707십억원에 달함.

또한, 2014년 2월 금융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에 KCB 의 직원이 다수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KB 국민카드의 신규 신용카드 발행 및 이에 관련된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음. 이에 관하여는 “Item 8A 연결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 - 법적 분쟁”을 참조하기 바람. 신용카드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는 첨부 표11) 참조.

기업금융: 첨부 표12)

원문의 기업금융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기업금융 부분은 사

업보고서 Ⅱ.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과 그 대출금이 당사의 기업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것은 첨부 표12) 참조.

당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하여 대출과 예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당사는 원화대출과 관련하여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각각 220,000개사 이상, 그리고 2015.12.31. 현재 240,000개사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고객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원화대출과 관련하여, 2013년도,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각각 1,654개사, 1,784개사 및 1,824개사의 대기업고객을 보유하고 있음. 당사는 기업에게 기업간 자금이체, 지점과 대리점으로부터 본점 계좌로의 자금이체, 기업의 여러 고객으로부터 기업의 주계좌로의 자금이체 등과 같은 펌뱅킹(firm banking)을 포함한 CMS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3년도,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각 117십억원, 119십억원 및 123십억원의 수수료수익을 올림. 기업금융 고객의 예금 총잔액은 2015.12.31. 현재 71,907십억원으로서 당사 예금 총액의 32.1%를 차지함.

중소기업금융

2015년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화표시대출의 연체율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그러나, 당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의 연체율은 향후 한국과 국제 경제의 악화로 더 증가할 수 있음.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재무상황과 유동성 악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최근 수년간 은행들의 중소기업들 대출 지원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였음.

-대출업무

당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대출상품은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임. 2015.12.31. 현재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은 당사의 중소기업대출 중 각 53.0%와 47.0%를 차지함. 2015.12.31. 현재 당사는 240,000개가 넘는 중소기업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중소기업대출은 부동산 또는 예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도 있고, 무담보인 경우도 있음. 2015.12.31. 현재, 중소기업대출 중 87.4%는 담보부대출 또는 보증부대출이고, 담보대출 중 96.1%는 부동산담보대출, 3.9%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 담보대출임.

-이자율 결정

당사는 기업대출상품의 이자율을 거래리스크, 자금조달 비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당사의 MOR 시스템(Market Opportunity Rate system, "MOR")은 현 시장이자를 고려한 정기 변동이율 시스템임. 2015.12.31. 현재 3개월 MOR은 1.67%, 6개월 MOR은 1.68%, 1년 MOR은 1.72%임.

대기업금융

-대출업무

당사의 대기업에 대한 주요대출상품은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임. 2015.12.31. 현재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 총액의 각 76.5%와 23.5%를 차지함.

2015.12.31. 현재 대기업대출 중 17.3%는 담보부대출과 보증부대출임. 담보부대출 중 부동산담보부대출은 80.1%에 해당하고 예금 또는 증권 담보부대출은 19.9%에 해당. 2015.12.31. 현재 대기업대출의 34.8%는 제조업, 25.4%는 금융업, 20.7%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임.

- 이자율 결정

대기업대출의 이자율은 중소기업대출에서의 이자율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함. 위의 중소기업금융 부분 참조.

자본시장업무와 국제금융

유가증권투자 및 매매: 첨부 표13)

당사는 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원천을 유지하고 이자 및 배당수익과 자본이익을 발생시키는 등 당사의 이익을 위해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매매하고 있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단기매매증권으로 구성된 당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2013년, 2014년 및 2015년 말 현재, 각 44,933십억원 및 46,389십억원 및 52,049십억원의 장부가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자산 총액의 각 15.4%, 15.0% 및 15.8%에 해당됨.

원문의 유가증권투자 및 거래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유가증권투자 및 거래 부분은 KB 국민은행의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투자유가증권의 현황과 공정가치 등에 관한 자료는 첨부 표13) 참조.

파생금융상품 거래: 첨부 표14)

당사는 당사의 고객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파생상품 거래에 참가하고 있음. 당사의 거래량은 2013년에 194,307십억원에서 2014년에는 154,872십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 163,030십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당사의 순수익(비용)은 2013.12.31., 2014.12.31. 및 2015.12.31. 현재 각각 544십억원, 98십억원 및 (11)십억원이었음.

기타 원문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부분은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3년, 2014년 및 2015년 말 현재 당사의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공정가치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관련 정보는 표14) 참조.

자산유동화 거래

원문의 자산유동화 거래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당사는 자산유동화에 관련된 상품개발과 운영능력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거

래시장에서의 선도은행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KB 투자증권을 통한 거래 등 다양한 자산유동화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대부분은 공모 발생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에 최초 발행금액 기준으로, 2013년도에 7,296십억원, 2014년에 8,208십억원, 그리고 2015년에 10,711십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음.

콜론

2013.12.31.에는 3,206십억원의 콜론과 2,648십억원의 콜머니, 2014.12.31.에는 2,032십억원의 콜론과 2,882십억원의 콜머니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5.12.31.에는 2,620십억원의 콜론과 2,091십억원의 콜머니가 있었음.

투자금융

당사는 수수료수익의 증가와 수익기반의 다양화를 위하여 투자금융분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당사 투자금융의 주요 업무에는 프로젝트 금융, M&A 관련 인수금융, 금융자문서비스, 구조화금융 등이 포함됨. 2015년도 당사 투자금융 수익은 총 221십억원(이자수익 38십억원, 수수료수익 183십억원)임.

증권중개

당사는 KB 투자증권을 통하여 증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식, 선물, 옵션 및 채무상품과 관련한 중개 서비스를 포함함. 2015년도 KB 투자증권은 증권중개 업무를 통하여 54십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림. 2016년 4월에 당사는 공개 상장된 국내 증권중개회사인 현대증권의 기발행주식 22.56%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관계법률에 따라 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당사 지분율을 최소 30%로 늘려야 함. 이러한 거래의 종결은 인허가의 취득 및 기타 거래종결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함. 당사는 현대증권 주식회사 인수를 통하여 특히 가계금융 고객에 대한 당사 증권중개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주요한 증권중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국제금융: 첨부 표15)

원문의 국제금융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국제금융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 및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 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일부 기술되어 있음.

당사는 외환서비스, 파생상품거래, 수출입관련서비스, 역외대출, 신디케이트론, 외화증권투자 등의 국제금융업무를 하고 있음.

외화자산 및 외화차입부채 현황은 표15) 참조.

2008년 3월 당사는 카자흐스탄 은행인 JSC Bank CenterCredit 의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약 528십억원에 JSC Bank CenterCredit 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3.0%에

해당하는 보통주 29,972,840주를 취득하였음. 위 계약 조항에 따라서, 당사는 2008년 11월 및 12월에 JSC Bank CenterCredit 의 보통주 총 14,163,836 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였음. 당사는 2009년 9월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및 JSC Bank CenterCredit 의 일부 주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1월 및 2월 JSC Bank CenterCredit 의 보통주 3,886,574주와 의결권 없는 전환우선주 36,561,465주를 취득함. 당사는 2015.12.31. 현재 JSC Bank CenterCredit 의 보통주 총수의 29.6%를 보유하고 있음.

2009년 5월 당사는 약 10십억원에 캄보디아 은행인 Khmer Union Bank 의 보통주 132,600주를 취득하였음. 그 결과, 당사는 Khmer Union Bank 의 의결권의 51%를 취득하였고, Khmer Union Bank 는 Kookmin Bank Cambodia PLC 로 사명이 변경되었음. 2010년 12월, 2012년 7월 및 2013년 6월, 당사는 Kookmin Bank Cambodia PLC 의 보통주 37,602주, 125,592주, 24,206주를 각 추가로 취득하였음. 2015.12.31. 현재, 당사는 Kookmin Bank Cambodia PLC 의 보통주 발행총수의 100.0%를 보유하고 있음.

투자신탁과 기타업무와 관련된 수탁 및 자산보관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자산, 연기금 및 일임자산 등을 보관·관리, 일반사무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당해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기타 원문의 투자신탁 등 업무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투자신탁 등 업무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기타 사업

신탁계정운용서비스

-금전신탁관리: 첨부 표16)

당사의 유형별 금전신탁 잔액은 표16) 참조.

원문의 금전신탁관리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금전신탁관리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또한 신탁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감독법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재산신탁관리

2015.12.31. 현재 당사의 재산신탁 총액은 2,344십억원으로 2013년말 기준 1,377십억원, 2014년말 기준 1,879십억원 대비 증가하였음. IFRS 상 재산신탁은 당사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투자신탁운용

당사는 KB 자산운용을 통하여 고객에게 증권투자신탁상품을 제공하고 고객의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2015.12.31. 현재 KB 자산운용이 운용중인 수탁고의 총액은 35,495십억원임.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KB 국민은행은 2013년 2월,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의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선정 전 5년간 당행은 선정에 참여하지 않아 기존의 기금 계좌만 관리하였으며,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받았음. 2013년도에는 28십억원의 위탁수수료를, 2014년도에는 23십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에 비해, 2015년도에는 29십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음.

방카슈랑스

원문의 방카슈랑스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방카슈랑스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현재 당사의 방카슈랑스 사업은 17개의 생명보험사 및 9개의 손해보험사(당사 계열사인 KB 손해보험 포함)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으며, 당사의 각 지점을 통하여 70개의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2015년도 현재, 당사의 방카슈랑스 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익은 101십억원임.

보험

KB 생명보험을 통해, 당사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생명보험, 종신생명보험 및 정기생명보험과 같은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KB 생명보험은 보험설계사, 재무상담사, 텔레마케터, 및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방카슈랑스 약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상품 판매를 위하여 다양한 영업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

2015년 6월, 당사는 국내 상장 손해보험회사인 KB 손해보험 (구 LIG 손해보험)의 지분 19.47%를 취득하였고 2015년 11월 지분율을 33.29%로 증가시켰음. KB 손해보험은 장기간병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사고보험 및 상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당사는 당사의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교차판매하고 당사의 고객 기반을 넓힘으로써 KB 생명보험과 KB 손해보험간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소비자금융

당사는 KB 캐피탈을 통해 소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당사는 2014년 3월 KB 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의 기발행 주식의 52.02%를 취득하였음. KB 캐피탈은 소액금융뿐만 아니라 자동차, 중장비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대하여 임대업 및 할부금융서비스를 제공함. 당사는 KB 캐피탈이 KB 국민은행을 포함한 당사의 기타 자회사들과의 공동사업운영을 통한 시너지뿐만 아니라, 소매 고객들에게 다양한 비은행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의 고객 기반을 계속해서 넓힐 것이라고 기대함.

영업망

은행지점 네트워크

2015.12.31. 현재 KB 국민은행은 국내에 1,138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큰 네트워크 중 하나를 구축하고 있음.

기타 영업망: 첨부 표17)

인터넷뱅킹 사업이나 폰뱅킹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수료 수익은 표17) 참조. 원문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부분은 사업보고서 II.사업의 내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당사의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자금 및 계좌이체, 조회거래 등을 할 수 있음.

당사는 지속적으로 펌 뱅킹 서비스(firm banking service)를 개발하여 왔음.

경쟁

본 요약본의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 - 경쟁 관련 리스크” 부분 참조.

정보기술

당사는 그룹과 자회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IT 시스템의 개발을 꾀하고 있음. 당사는 IT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업무관리지원과 고품질의 고객서비스제공에 중대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당사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음.

메인프레임(Mainframe) 기반의 은행 및 카드 IT 시스템은 재해복구센터의 백업기능을 통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설계 되었음. 또한, 당사의 은행 및 카드 IT 시스템은 “Parallel Sysplex” 라는 “멀티 CPU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CPU 장애시에 심각한 중단 없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음. 2010년, 당사는 금융거래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차세대 금융 및 신용카드 IT 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함. 당사는 또한 영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당사의 IT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IT 시스템의 운영리스크를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하여, 다채널 통합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 시스템을 포함하여, 신기술을 채택함.

2011년 당사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좀 더 융통성 있고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정보 보관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당사의 서버 시스템에 가상화 기술을 채택함.

당사는 2015년도에, IT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약 499십억원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IT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및 기타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관련 인력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015.12.31. 현재, IT 운영과 관련하여 총 1,103여명의 상근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자산과 부채

달리 기재되어 있는 바를 제외하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15년 회계연도에 대한 금액은 IFRS에 따른 연결 기준으로 제공됨.

여신 현황

당사의 2013.12.31. 현재 여신 총액은 221,862십억원, 2014.12.31. 현재 여신 총액은 233,902십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당사의 2015.12.31. 현재 여신 총액은 247,587십억원임. 2013.12.31. 현재 당사 여신 총액의 94.6%, 2014.12.31. 현재 당사 여신 총액의 94.8%가 이 원화대출이었던 것에 비해 2015.12.31. 현재 당사 여신 총액의 94.3%가 원화대출이었음.

- 대출채권 분류: 첨부 표18)

각 기간별 여신 유형에 관해서는 표18) 참조.

원문의 여신 유형 부분은 당사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참조.

-여신 집중

당사의 동일차주 또는 단일 재벌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각 20%와 25%로 제한됨. KB국민은행의 동일차주 또는 단일 재벌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는 은행법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의 합계액의 각 20%와 25%로 제한됨.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익스포저 현황: 첨부 표19)

2015.12.31. 현재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당사의 총 익스포저는 12,741십억원에 달하며, 당사의 총 익스포저의 4.1%에 해당됨. 2015.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차주 또는 발행회사 중 14개사가 잔여 여신규모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한국의 상위 41대 재벌에 속함.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익스포저 현황은 표19) 참조.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첨부 표20)

2015.12.31. 현재 당사의 총 익스포저의 7.1%는 잔여 여신규모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41대 재벌에 대한 것임. 당사가 가장 높은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대 재벌에 대한 당사의 익스포저는 표20) 참조.

- 산업별 여신의 집중: 첨부 표21)

2015.12.31. 현재 당사의 산업별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한 기업여신의 총잔액은 표21) 참조.

- 만기 분석: 첨부 표22)

당사는 그 여신심사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여신심사를 거친 후 통상 운전자금대출과 무담보부 가계대출(분할상환금은 제외)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음. 통상, 운전자금대출은 1년 이내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며, 무담보부 가계대출은 1년 이내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함. 당사의 2015.12.31. 현재 잔존만기별 대출채권 현황에 관하여는 표22) 참조.

- 이자율 민감도

당사의 2015.12.31. 현재 잔존만기가 1년 초과인 여신 중 고정금리 여신은 18,158십억원, 변동 또는 조정금리 여신은 113,614십억원임. 당사의 이자율 리스크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Item 11.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정보-운영리스크 관리”부분 참조.

-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크레딧 익스포져 : 첨부 표23)

원문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회생, 화의 또는 기업구조조정절차 등 포함) 대상 기업에 대한 크레딧 익스포져 부분은 감사보고서 중 주석(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워크아웃은 당사가 차주와 기타 채권자들과 함께 해당 차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 절차를 말함. 과거에, 워크아웃은 2015.12.31.에 최종 만료된 일련의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규율됨. 2016년 3월, 국회는 2018.6.30.자로 효력이 만료되는 신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가결하였음. 신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금융채권자(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여부가 아니라, 차주에 대한 대출 기타 신용공여를 통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함)들은 그들의 차주를 상대로 한 자신들의 권리행사의 금지,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 또는 주채권은행, 차주, 외부전문기관이 마련한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음.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 75% 이상의 금융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됨.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총 금융채권액의 1% 미만을 보유하는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들이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를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음.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 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금융채권자들의 승인이 요구됨. 그러나,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4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차주의 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는 담보부부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금융채권자의 추가 승인이 요구됨.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은 일단 승인이 되면, 제1차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제외된 금융채권자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금융채권자를 제외한 차주의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구속력을 가짐. 워크아웃의 개시,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 신규 신용공여,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기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반대투표한 금융채권자는 해당 사안에 찬성투표한 금융채권자에게 그들의 채권을 상호 합의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당사자들이 매수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음. 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채권자는 법원에게 해당 결정을 변경하라고 요

청할 수 있음.

당사는 현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 여신을 공여하거나 해당 기업의 채무 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2015.12.31.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한 당사의 여신 및 보유 채무증권은 616십 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여신 및 보유 채무증권 총액의 0.2%을 차지함. 여기에는 대기업 차주에게 공여된 여신 및 당사가 보유하는 그 채무증권의 합계액인 203십억원과 중소기업 차주에게 공여된 여신 및 당사가 보유하는 그 채무증권의 합계액인 413십억원이 포함됨.

2015.12.31. 현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을 포함한 기업개선작업에 있는 10대 기업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에 관한 자료는 표23) 참조.

-총당금 설정정책

당사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대손총당금을 설정함. 당사는 개별적으로 중요한 여신은 건별로 각각 평가하고 다른 여신은 모두 합하여 집합적으로 평가함. 또한, 부실여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여신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함. 개별적으로 중요한 여신은 최초 인식 이후 발생한 1개 이상의 사건들의 결과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손총당금으로 계상함. 집합적으로 평가된 여신의 경우에는 과거 손실 경험, 차주의 재무현황 및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신의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대손총당금 수준을 정함. 대손총당금의 추가나 변동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대손총당금 전입액을 계상하며, 당기손익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됨.

당사는 다음을 일반적으로 손상 대출(impaired loans)로 분류함.

- 지급기일이 90일 이상 연체된 여신
- 추심관련 법적 절차의 대상인 여신
- 은행연합회로부터 원리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차주에 대한 여신
- KB 국민은행 내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C 또는 D 등급으로 평가된 법인 차주에 대한 여신
- 신용도의 유의적인 하락에 따라 개별평가총당금이 설정된 여신
- 채무재조정에 따라 원금 및 지급될 이자(interest payable)의 금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여신

-연체기간별 여신 현황 : 첨부 표24)

당사의 연체기간별 여신 현황(발생이자 제외)은 표24) 참조.

- 이자미보정 대출채권 및 이자보정 연체대출채권 : 첨부 표25)

당사는 일반적으로 손상 대출(impaired loans)을 이자미보정여신으로 분류함. 그러나, 당사는 예적금에 의해 현금으로 전액 담보되거나 정부, 예금보험공사나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속 보정.

당사는 해당 여신이 이자미보정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해당 여신에 대하여 이자를 인식하지 않음. 당사는 이자 및 원금 납입이 최근에 이행되고 있고 향후 원금 및 이자 납입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확신되는 경우, 해당 여신을 이자보정 여신으로 재분류함. 당사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회수 될 때까지 이자미보정여신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미보정이자란 이자미보정여신에 관하여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아니한 이자를 말함. 당사가 해당 여신에서 발생한 이자를 미보정하지 않았더라면, 당사는 일년 동안 또는 대출실행 이후로 일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이자미보정여신으로 회계처리된 여신에 관한 이자수익으로서 2011년, 2012년, 2013년 및 2014년 회계연도에 대해 각각 336십억원, 309십억원, 332십억원 및 275십억원을, 2015년 종료 회계연도에 220십억원을 인식하였을 것임.

이자미보정여신 및 이자보정 연체여신은 표25) 참조. “이자보정 90일 이상 연체여신”은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이 계약상으로 90일 이상 연체되었으나 여신에 대한 이자를 보정하는 여신을 말함.

- *채권채무 재조정된 대출채권: 첨부 표26)*

“채권채무 재조정된 대출채권”은 표26) 참조.

해당 여신은 채권채무 재조정시 계약조건 변경의 결과로 계약상의 원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가 발생하는 기업대출로 주로 이루어짐.

2015년 연간으로 채권채무 재조정된 여신의 원래 계약에 따라 인식되었을 이자수익은 20십억원에 달하며, 이 중 14십억원이 2015년의 이자수익으로 인식됨.

- *잠재적 문제여신*

2015.12.31. 현재 당사는 차주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변제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차주의 능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2,718십억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음.

- *기타 문제시되는 이자부자산*

당사는 위와 같이 공시된 이자미보정 여신, 이자보정 연체여신, 재조정된 여신, 잠재적 문제 여신의 일부로서 공시할 것이 요구되는 부실채권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기타 이자수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15년 말 기준으로, 당사는 부실채권채무재조정과 관련하여 이자가 연체된 채무증권을 수령한 적이 없음.

- *무수익여신 : 당사의 무수익여신의 변동사항은 첨부 표27)참조.*

무수익여신은 90일 이상 연체된 여신으로 정의됨. 해당 여신은 “고정” 또는 “고정 이하” 여신으로 통상적으로 분류됨. 한국 규제요건에 따른 무수익여신의 분류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위해서는 아

래에 기재된 표31)을 참조.

당사의 무수익여신 포트폴리오는 표27) 참조.

-무수익여신 분석: 첨부 표28)

차주별 당사의 총 무수익여신은 표28) 참조.

-상위 20대 무수익여신: 첨부 표29)

2015.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무수익여신은 당사의 무수익여신 총액의 30.9%를 차지함.
2015.12.31. 현재 당사의 상위 20대 무수익여신은 표29) 참조.

-무수익여신에 대한 전략

당사의 무수익여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수익여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임. 당사는 자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무수익여신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임.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익여신이 발생한다면, 각 지점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는 직원은 고객의 자산에 관하여 실사를 개시하고, 지급청구 및 법적 조치 관련 통지를 하며 법적 조치를 준비함. 이와 동시에 당사는 채권매각, 대손상각, 고객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채권정상화 등의 조치를 진행함.

무수익여신의 해소를 위하여 대손상각 이전 단계까지 각 영업점에서의 관리, 지급청구서의 발송 등을 수행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을 포함한 7개 은행과 금융감독원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중에 있는 건설회사들에 대한 약 1조 2,000억원 상당의 무수익 은행 여신을 취득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11년 6월에 설립되었음.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를 업무 집행사원, 7개 은행과 다른 투자자들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함. 무수익 은행 여신은 시장 가격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매수하고, 그 매수자금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무수익여신을 매도하는 등 은행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조달될 것임. 2011년 6월 당사는 148십억원을 출자 약정하고, 109십억원의 회전대출을 약정함. 2011년 6월에서 12월까지 당사는 당사로부터의 무수익여신 148십억원의 매수와 관련하여 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약정금 전액을 출자 납입하였음. 2012년 9월, 당사는 출자약정금을 241십억원으로 늘리는데 합의함. 2012년 9월에서 12월 사이 당사는 44십억원을 출자 납입함. 당사의 회전대출 약정은 2013년 55십억원으로 감소되었고 2014년 종료됨. 당사는 2014년 또는 2015년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 없음.

여신유형별 대손충당금 현황, 대손충당금의 분석은 원문이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 대손충당금 현황 및 분석: 첨부 표30)

여신유형별 대손충당금 현황 및 변동 분석 내역은 표30) 참조. 해당 비율은 여신 총액에 대한 각

유형별 여신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대손준비금

만일 당사의 대손총당금이 규제 목적상 부족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당사는 이익잉여금 내에 대손준비금을 계상하여 부족액을 총당하여야 함. 대손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음. 계상이 요구되는 대손준비금 수준은 (x) 바젤 III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내부등급 기준 방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예상손실금액과 (y) 금융위원회가 명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손준비금 중 더 큰 금액과 IFRS 상 대손총당금과의 차액만큼임. 2015.12.31. 현재 당사의 대손준비금은 2,454십억원임. 여신의 구분 및 특징에 관하여는 표31) 참조.

대손상각

당사는 가능한 한 대손상각채권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노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대상채권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이를 상각할 것임. 대손상각을 위해서는, 추정손실 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때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손상각신청을 하여야 하며, 여신관리부는 상각신청건에 대하여 영업감사부에 책임심의의 의뢰함. 책임심의 이후 여신관리부는 상각처리가 필요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함.

대손상각된 대출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된 이후에도, 당사는 자회사인 KB 신용정보를 통한 방법 등으로 그 추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담보부대출이 연체된 경우, 당사는 통상적으로 연체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긴 기간 이후) 법원에 담보물의 경매를 신청하여 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함.

연체고객에 대한 신용희생프로그램

2009년 3월, 금융위원회는 당사를 비롯한 한국의 은행들에게 단기미상환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차주들을 위해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서비스를 포함한,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pre-workout program)”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음. 2009년 4월부터 시행중인 상기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 하에서,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15억원 이하의(5억원 이하의 무담보 대출금 및 10억원 이하의 담보 대출금) 대출금을 연체한 가계차주, 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라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가계차주는 만기연장 및/또는 금리조정을 제공받을 예정임.

투자유가증권 포트폴리오

투자 정책

당사는 당사의 계산으로 다음 목적으로 원화표시증권과 그보다 적은 규모로 외화표시증권에 투자하고 이를 매매함.

- 당사 자산의 안정성 및 다양성을 유지
- 당사의 자금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예비유동성 원천을 유지
- 당사의 핵심 대출업무로부터의 수익을 보완

당사는 증권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경향, 산업분석 및 신용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

기타 원문의 투자정책에 관한 부분은 자산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임. 다만, 원문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장부금액과 시장가치 및 만기분석: 첨부 표32) 및 표33)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에 관하여는 표32), 채무증권의 만기분석 및 가중평균수익률에 관하여는 표33) 참조.

리스크의 집중: 첨부 표34)

리스크의 집중에 관하여는 표34) 참조.

자금조달

예금은 2013년 말 현재 자금조달총액의 83.0%, 2014년 말 현재 82.4% 및 2015년 말 현재 82.1%를 각 차지함. 기타 원문의 자금조달에 관한 부분은 당사의 국내외 다양한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임. 원문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예수부채: 첨부 표35)

예수부채 평균잔액 및 평균금리에 관하여는 표35) 참조. 다만, 원문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기한부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첨부 표36)

잔여만기별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하여는 표36) 참조.

장기차입부채: 첨부 표37)

계약만기별 장기차입부채(사채 및 채무로 구성)에 관하여는 표37) 참조.

단기차입부채: 첨부 표38)

단기차입부채에 관하여는 표38) 참조.

감독 및 규제

2013년 7월 및 9월 금융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최저자본비율 규제요건과 관련된 바젤 III 를 도입하는 규정 변경을 발표한 바, 이에 따른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규제요건 변경은 “Item 3D. 투자리스크 요소 - 유동성과 자본관리 관련 리스크” 부분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이를 참조.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소유제한,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대주주 또는 자회사간의 거래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운영과 감독 등을 정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규정은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상의 ‘금융감독법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은행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자본적정성 및 총당금, 유동성, 개인차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금융 익스포져, 이자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대출에 대한 규제, 가계대출 관련 최근 규정, 부동산투자자에 대한 규제, 다른 회사의 지분취득에 대한 제한, 은행 소유에 대한 제한, 예금자보호제도, 신탁업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상의 ‘금융감독법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기타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상의 ‘금융감독법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Item 4.C. 조직구조 : 첨부 표39)

원문의 조직구조에 관한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조직구조에 관한 부분은 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 기공시되었으며, 첨부 표39) 참조.

Item 4.D. 부동산, 시설, 설비 : 첨부 표40)

2015.12.31. 현재 당사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순 장부가액은 3,017십억원임. 부동산, 시설, 설비에 관하여는 표40) 참조. 기타 원문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Item 4A. 미해결된 SEC 의견(Unresolved Staff Comment)

당사는 당사의 Form 20-F Annual Report 와 관련하여 1934년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미국 SEC 로부터 받은 의견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없음.

Item 5. **영업 및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및 전망**

Item 5.A. **영업실적**

개관

이하는 IFRS 에 의거하여 작성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음. 연결재무제표는 당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들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공동지배회사와 관계기업(당사가 실질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회사들)에 대한 투자에 관한 재무정보는 지분법을 이용하여 작성함.

국내경제의 동향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은 한국의 금융 및 경제상황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임.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상업은행, 소비자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부문(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그 결과 이 부문에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었음. 또한 2014년 및 2015년에 한국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를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당사 가계대출 포트폴리오가 2013.12.31. 현재 107,644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119,249십억원으로, 또 2015.12.31. 현재 124,194십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기여함. 가계대출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최근 수년 간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경제의 진전사항에 영향을 받음. 국내 및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함.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세계의 많은 국가, 특히 남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등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 닥친 재정 위기와 중국 및 주요 신흥국의 경기 침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기타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추측에 따른 금리 변동 및, 이라크, 시리아 및 예멘을 포함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및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최근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에 따라 상당한 불확실성을 겪음. 세계 경제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사항은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당사는 외국통화 표시 부채 및 자산, 구조화 상품을 포함한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계 및 한국 금융시장의 부정적 변동 상황과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

한국과 세계경제의 변동적인 상황 및 취약점과 세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석유 및 원자재의 가격변동, 금리 및 환율 변동, 높은 실업률, 낮은 소비심리,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의 잠재적인 긴축운동,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과 같은 요인 때문에, 2016년과 가까운 미래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함.

국내 일반적인 경제동향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SEC 에 공시된 원문을 참조하고, 본 요약번역본의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 부분을 참조.

인수

2013년 6월, 당사는 ING Insurance International II B.V.가 보유하고 있는 KB 생명보험의 지분 49%를 167십억원에 인수하였으며, 그 결과 KB 생명보험은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2013년 9월, 당사는 에한솔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38십억원에 인수하였음. 당해 인수와 관련하여, 당사는 자산 470십억 및 부채 439십억원 및 영업권 7십억원을 인식하였음. 2014년 1월, KB 저축은행은 에한솔저축은행과 합병하여, KB 저축은행으로 통합되었음.

2014년 3월, 당사는 국내 상장 소비자금융회사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기발행 주식 52.02%를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로부터 280십억원에 인수한 후 해당 회사의 명칭을 KB 캐피탈로 변경하였음.

2015년 6월, 당사는 국내 상장 손해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의 기발행 주식 19.47%를 최대주주 등 개인주주들로부터 651십억원에 인수하고 사명을 LIG 손해보험에서 KB 손해보험으로 변경함. 2015년 11월, 당사는 KB 손해보험의 자사주를 231십억원에 취득함으로써 KB 손해보험에 대한 당사 지분을 33.29%로 증가시켰음. KB 손해보험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함. 2015.12.31. 현재 KB 손해보험의 자산총액은 27,521십억원, 지분총액은 2,111십억원이며, 2015년도의 매출총액은 11,110십억원이며 해당 연도의 이익은 159십억원에 달함.

나아가, 2016년 4월에 당사는 공개 상장된 국내 증권중개회사인 현대증권의 기발행주식 22.56%를 현대상선 및 기타 주주들로부터 1,250십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금액은 거래 종결 시 변경될 수 있음. 당사는 관계법률에 따라 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대증권에 대한 당사 지분율을 최소 30%로 늘려야 함. 이러한 거래의 종결은 인허가의 취득 및 기타 거래종결 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함. 2015.12.31. 현재,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은 23,779십억원, 지분총액은 3,302십억원이며, 2015년도의 매출총액은 4,267십억원이며 해당 연도의 이익은 280십억원에 달함.

회계정책의 변경

2013년부터 도입된 IFRS 10(연결재무제표)의 적용에 따라, 당사의 2013.12.31., 2014.12.31. 및 2015.12.31. 현재 및 동 일자 종료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기존 연결대상이 아니었던 원금보전신탁과 일부 기타 피투자회사를 연결 범위에 포함하고, 기존에 연결대상이었던 일부 기타 피투자회사를 제외함. 당사는 연결 범위에 (i) 당사가 현재 해당 피투자회사들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ii) 해당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당사의 투자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해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iii) 당사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 피투자회사들에 대하여 당사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해당 피투자회사들을 포함시켰음.

2013년 IFRS 10(연결재무제표)의 적용 이후, 당사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포함)를 연결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였음.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들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관련하여는 당사의 본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40을 참조하기 바람.

주가, 환율, 이자율의 변화

원문의 주가, 환율, 이자율의 변화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임.

중요 회계정책

원문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은 최근에 발표된 회계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당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을 담고 있음.

대출채권 손상 및 대손충당금

당사는 매 결산기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추정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당사는 대출 포트폴리오상 리스크의 특징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과거 손실경험, 차주의 재무상태 및 현 경제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함.

2015년 말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총액은 2,582십억원임. 2015년도에 당사의 회수가액을 차감한 순대손상각액은 926십억원이며, 2015년도에 1,100십억원의 대손충당금(미사용 약정, 지급 보증, 금융보증계약 및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충당금과 함께 신용손실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함)을 전입하였음.

금융상품의 평가

원문의 증권 및 금융상품의 평가 부분은 IFRS에 기초한 것이고,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증권 및 금융상품의 평가 부분은 감사보고서상의 연결재무상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부분(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관한 회계상 평가방법은 당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비일시적인 손상차손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하여 기간별로 크게 변동할 수 있고, (2)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실제 매각대금 사이의 차액은, 당사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손실이나 처분손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임.

이연법인세자산

당사는 기존의 자산, 부채금액과 각각의 과세기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액간의 일시적인 차이로 인한 장래 과세 결과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함. 이연법인세 자산은 오로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나 미사용 세액공제액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과세대상수익이 있는 경우에 인식됨. 이러한 평가에는 상당한 경영 판단과 추정이 요구됨.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사는 과거 세무 능력과 수익성 정보 및 관련되는 적격 이월 기간, 가능한 세무 계획 기회 및 여타 관련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한 예상 영업실적을 이용함.

이연법인세부채와 자산 1,629십억원을 상계한 이후의 2015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자산은 8십억원, 이연법인세 부채는 179십억원임.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추정하는 것은 당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1) 위 인식 및 평가는 각 기간별 당사의 장래 수익성에 관한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고, (2) 장래 특정일에 대한 장래 수익 추정액과 다른 날의 장래 수익 추정액 간의 중대한 차이는 각 기간별로 당사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세비용 또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임. 당사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추정에는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이 추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임.

세무상 불확실성

당사의 세무상 불확실성 인식과 관련한 회계 규정은 당사 연결재무제표 주석3.22를 참조하기 바람.

당사는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액을 당시 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는 IAS 12(법인세)의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상 당사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인식함.

영업실적

순이자이익

원문의 순이자이익 부분은 IFRS 에 기초한 것이고,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순이자이익 부분은 감사보고서상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의 내용에 해당.

2015년과 2014년의 비교

이자수익 : 대출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이 10.6% 감소한 것을 주 원인으로 하여, 당사의 이자수익은 2014년 11,635십억원에서 2015년 10,376십억원으로 10.8% 감소하였음. 2014년 대비 2015년의 국내 금리 수준 인하를 반영하여, 이자수익자산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 2014년 4.34%에서 2015년

3.67%로 67 bp 감소함. 이러한 감소의 영향은 당사의 이자수익자산 평균잔액이 2014년 268,330십억 원에서 2015년 282,315십억원으로 5.2% 증가한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으며, 이는 주로 당사 대출 포트폴리오의 증가분에 기인함.

이자비용 : 이자비용은 2014년 5,219십억원에서 2015년 4,173십억원으로 20.0%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사채 이자비용의 16.0% 감소에 의하여 보다 심화된 예금 이자비용의 21.1% 감소에 영향을 받았음. 당사의 이자부 부채의 평균비용은 2014년 2.12%에서 2015년 1.60%로 52 bp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5년의 국내 저금리 기조에 주로 기인함. 이러한 감소의 영향은 당사의 이자부 부채 평균잔액이 2014년 246,692십억원에서 2015년 260,770십억원으로 5.7% 증가한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으며, 이는 주로 사채 평균잔액의 증가분에 기인함.

순이자마진 : 순이자마진은 이자부자산 평균잔액 대비 순이자이익의 비율을 의미함. 당사의 전체 순이자마진은 2014년 2.39%에서 2015년 2.20%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이자수익의 2014년 6,416십억원에서 2015년 6,203십억원으로의 3.3% 감소분 및 이자부자산 평균잔액의 2014년 268,330십억원에서 2015년 282,315십억원으로의 5.2% 증가분에 영향을 받음.

2014년과 2013년의 비교

이자수익 : 대출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이 5.6% 감소한 것을 주 원인으로 하여, 당사의 이자수익은 2013년 12,357십억원에서 2014년 11,635십억원으로 5.8% 감소하였음. 2013년 대비 2014년의 국내 금리 수준 인하를 반영하여, 이자수익자산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 2013년 4.76%에서 2014년 4.34%로 42 bp 감소함. 이러한 감소의 영향은 당사의 이자수익자산 평균잔액이 2013년 259,645십억원에서 2014년 268,330십억원으로 3.3% 증가한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으며, 이는 주로 당사 대출 포트폴리오의 증가분에 기인함.

이자비용 : 이자비용은 2013년 5,834십억원에서 2014년 5,219십억원으로 10.5%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예금 이자비용의 10.1% 감소 및 사채 이자비용의 13.3% 감소분에 영향받음. 당사의 이자부 부채의 평균비용은 2013년 2.45%에서 2014년 2.12%으로 33 bp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4년의 국내 저금리 기조에 주로 기인함. 이러한 감소의 영향은 당사의 이자부 부채 평균잔액이 2013년 238,452십억원에서 2014년 246,692십억원으로 3.5% 증가한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으며, 이는 주로 사채 평균잔액의 증가분에 기인함.

순이자마진 : 순이자마진은 이자부자산 평균잔액 대비 순이자이익의 비율을 의미함. 당사의 전체 순이자마진은 2013년 2.51%에서 2014년 2.39%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이자수익의 2013년 6,523십억원에서 2014년 6,416십억원으로의 1.6% 감소분 및 이자부자산 평균잔액의 2013년 259,645십억원에서 2014년 268,330십억원으로 3.3% 증가분에 영향받음.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당사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는 “Item 4.B. 사업의 개황-자산과 부채-여신현황-충당금설정정책”을 참조.

신용손실총당금전입액은 총당금 환입금(reversal)을 차감한 대출채권총당금 전입액, 미사용약정총당금 전입액, 지급보증총당금 전입액, 금융보증계약총당금 전입액 및 기타 금융자산총당금 전입액을 포함함.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의 대손총당금이 규제목적상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대손준비금을 계상하여 부족액을 총당하며, 이는 이익잉여금 내에서 분리되어 있음. “Item 4.B. 사업의 개황-자산 및 부채- 대출 포트폴리오- 대손준비금” 및 본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당사 연결재무제표 주석26을 참조하기 바람.

2015년과 2014년의 비교

당사 신용손실총당금전입액은 2014년 1,228십억원에서 2015년 1,037십억원으로 15.6%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주로 가계대출과 관련된 대손총당금의 감소에 기인함. 이러한 감소는 가계대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향상에 기인함.

당사의 상각채권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대손상각액은 상각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감소로 인하여 2014년 1,560십억원에서 2015년 926십억원으로 40.6% 감소하였음.

2014년과 2013년의 비교

당사 신용손실총당금전입액은 2013년 1,443십억원에서 2014년 1,228십억원으로 14.9%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주로 기업대출채권 및 신용카드채권에 관련된 대손총당금의 감소에 기인함. 이러한 감소는 주로 연체율의 감소로 인한 해당 대출채권과 신용카드채권의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향상에 기인함.

당사의 상각채권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대손상각액은 상각 기업대출채권 회수액 증가로 인하여 2013년 1,717십억원에서 2014년 1,560십억원으로 9.1% 감소하였음.

대손총당금

당사는 대출채권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총당금을 설정함. 당사는 개별적으로 중요한 대출은 건별로 평가하고, 기타 대출은 집합적으로 평가함. 또한 만일 대출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대출거래를 유사한 신용 위험 특성을 가진 대출 그룹에 편입시키고 이 경우 개별 대출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집합적으로 대출 손실을 평가함.

대손총당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중요 회계정책 대출채권 손상 및 대손총당금” 및 “Item 4.B. 사업의 개황-자산 및 부채-여신 현황- 대손총당금 현황 및 분석”을 참조하기 바람.

기업대출 :

2015년에, 총기업대출 대비 손상기업대출은 당사 총기업대출 증가율이 당사 손상기업대출 증가율

을 증가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으며, 총기업대출 대비 기업여신대손총당금 비율은 손상기업대출 대비 기업여신대손총당금이 2015년 증가한 것에 반해 기존 수준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손상기업대출 증가율을 능가한 당사 기업대출 포트폴리오의 확대와 그에 대한 대손총당금의 증가를 반영한 것임.

2014년에, 총기업대출 대비 손상기업대출 및 기업여신대손총당금 비율은 주로 당사 손상기업대출의 감소에 기인하여 감소하였으며, 이는 당사 기업대출 포트폴리오의 자산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당사의 손상기업대출의 감소는 기업여신대손총당금 감소를 능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년에 손상기업대출 대비 기업여신대손총당금 비율이 증가하였음.

2013년에, 총기업대출 대비 손상기업대출의 비율은 개별평가총당금이 설정된 대출을 비롯한 손상기업대출의 재분류에 기인하여 증가하였음. 총기업대출 대비 대손총당금 비율은 당사 기업대출의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향상에 주로 기인하여 감소하였고, 그 결과 손상기업대출 대비 대손총당금 비율의 감소를 야기함.

가계대출 :

2015년 총가계대출 대비 손상가계대출 및 가계대출대손총당금은 모두 당사 손상가계대출 감소 및 그에 대한 총당금 감소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이는 당사 가계대출 포트폴리오의 자산건전성 향상과 당사 총가계대출금액 증가에 영향 받음. 당사 손상가계대출 감소는 가계대출대손총당금 감소를 능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년에 손상가계대출 대비 가계대출대손총당금 비율이 증가하였음.

2014년 총가계대출 대비 손상가계대출 비율은, 당사의 손상가계대출 감소로 인해 감소함. 이는 당사 총가계대출 금액 증가 및 당사 가계대출 포트폴리오의 자산건전성 향상에 영향 받음. 당사의 손상가계대출의 감소는 가계대출 대손총당금 감소를 능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년에 손상가계대출 대비 가계대출대손총당금 비율이 증가하였음.

2013년 총가계대출에 대비 손상가계대출의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였음. 다만, 당사 기존 손상가계대출의 자산건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전반적인 손상대출의 구성이 보다 개선됨. 이는 총가계대출 대비 대손총당금 비율 및 손상가계대출 대비 대손총당금 비율 모두의 감소를 야기함.

원문의 상세한 내용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대손총당금 부분은 따른 감사보고서상의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대손총당금 부분(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신용카드잔액 :

2015년 총신용카드잔액 대비 손상신용카드잔액의 비율은, 당사의 손상신용카드잔액 증가 비율이 총신용카드잔액 증가 비율을 상회함에 따라 증가하였음. 2015년 총신용카드잔액 대비 대손총당금

비율 및 손상신용카드잔액 대비 신용카드잔액 대손충당금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당사 기존 손상신용카드잔액의 자산건전성 향상에 기인함.

2014년 총신용카드잔액 대비 손상신용카드잔액의 비율은, 당사의 손상신용카드잔액 감소 비율이 총신용카드잔액 감소비율을 상회함에 따라 근소하게 감소하였음. 2014년 총신용카드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및 신용카드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도 이와 유사하게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당사 기존 손상신용카드잔액의 자산건전성 향상에 기인함.

2013년 총신용카드잔액 대비 손상신용카드잔액의 비율의 증가는 주로 상각 전 신용카드잔액 연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시킨 당사의 2013년 상각 정책 변동에 따른 신용카드잔액 상각액 감소로 인하여 손상신용카드잔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13년 총신용카드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손상 신용카드 잔액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함. 2013년 손상신용카드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손상신용카드잔액 증가분이 신용카드잔액 대손충당금 증가분을 상회하며 감소함.

순수수료이익

2015년과 2014년의 비교

당사 순수수료 수익은 2014년 1,383십억원에서 2015년 1,535십억원으로 11.0% 증가함. 이는 수수료 비용이 2014년 1,283십억원에서 2015년 1,436십억원으로 11.9% 증가한 것에 일부 상쇄되었으나 수수료 수익이 2014년 2,666십억원에서 2015년 2,971십억원으로 11.4% 증가된 것에 주로 기인함.

수수료 수익의 11.4% 증가는 주로 수취한 신용카드관련수수료, 직불카드관련수수료 및 기타 대리사무취급수수료의 증가에 기인함. 수취한 신용카드관련수수료는 2014년 1,107십억원에서 2015년 1,223십억원으로 10.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당사 고객들의 현금을 대신한 신용카드 사용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직불카드관련수수료는 2014년 292십억원에서 2015년 341십억원으로 16.8%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직불카드사용 장려 정책에 기인함. 신탁보수관련수수료 및 대리사무취급수수료는 2014년 231십억원에서 2015년 271십억원으로 17.3%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식연계증권 판매량 증가에 기인함.

수수료비용의 11.9% 증가는 주로 지급 신용카드관련수수료가 2014년 980십억원에서 2015년 1,094십억원으로 11.6% 증가한 것에 기인함. 이러한 지급 신용카드관련수수료의 증가는 주로 직불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통신망 제공자에 대한 지급수수료 증가에 기인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당사 순수수료 수익은 2013년 1,479십억원에서 2014년 1,383십억원으로 6.5% 감소함. 이는 수수료 비용이 2013년 1,178십억원에서 2014년 1,283십억원으로 8.9% 증가된 것에 주로 기인함.

수수료 수익은 2013년 2,657십억원 대비 2014년 2,666십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신탁보수관련수수료 및 직불카드관련수수료의 증가분이 대리사무취급수수료와 증권대행수수료의 감소분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임. 신탁보수관련수수료는 2013년 161십억원에서 2014년 231십억원으로 4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가연계증권의 판매 증가에 기인함. 체크카드관련

수수료는 2013년 256십억원에서 2014년 292십억원으로 14.1%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의 사용을 장려한 정부 정책에 기인함. 신용카드관련수수료는 2013년 1,127십억원에서 2014년 1,107십억원으로 감소하였음. 대리사무취급수수료는 2013년 207십억원에서 2014년 158십억원으로 23.7%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방카슈랑스 업무 감소에 기인함. 증권대행수수료는 수익증권 매도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2013년 178십억원에서 2014년 149십억원으로 16.3% 감소함.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손익

2015년과 2014년 비교

당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손익은 2014년 439십억원에서 2015년 360십억원으로 18.0% 감소하였음. 이러한 감소는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순손익의 변화 및 매매목적 금융자산순수익이 20.8%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순손익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상쇄된 것임. 당사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순손익은 2014년 98십억원 순수익에서 2015년 11십억원 순손실로 변동하였으며 이는 주로 매매목적 주식 또는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순손익이 2014년 53십억원 순수익에서 2015년 90십억원 순손실로 변동한 것에 기인함. 당사 단기매매금융자산순수익은 2014년 414십억원에서 2015년 328십억원으로 20.8%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단기매매채무증권순수익이 2014년 432십억원에서 2015년 311십억원으로 28.0% 감소한 것에 기인함. 당사의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순손익은 2014년 11십억원 순손실에서 2015년 104십억원 순수익으로 변동하였는데, 이는 주로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순손익이 2014년 17십억원 순손실에서 2015년 101십억원 순수익으로 변동한 것에 기인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당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손익은 2013년 757십억원에서 2014년 439십억원으로 42.0% 감소하였음. 이러한 감소는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순손익이 2013년 544십억원에서 2014년 98십억원으로 82.0%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며, 이는 단기매매금융자산순손익이 2013년 250십억원에서 2014년 414십억원으로 65.6% 증가한 결과로 인하여 일부 상쇄된 것임.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순손익이 감소한 주원인은 매매목적통화파생상품순손익이 2013년 517십억원에서 2014년 123십억원으로 76.2% 감소하였기 때문임. 단기매매금융자산순손익이 증가한 원인은 단기매매채무증권 순손익이 2013년 222십억원에서 2014년 432십억원으로 94.6% 증가한 것에 기인함.

일반관리비

2015년과 2014년 비교

당사 일반관리비는 2014년 4,010십억원에서 2015년 4,524십억원으로 12.8% 증가함. 이는 종업원 급여비용이 2014년 2,593십억원에서 2015년 3,126십억원으로 20.6%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며, 종업원 급여비용의 증가는 주로 국민은행이 2015년 실시한 희망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종업원퇴직급여가 2014년 1십억원에서 2015년 392십억원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당사 일반관리비는 2013년 3,984십억원에서 2014년 4,010십억원으로 0.7% 증가함. 이는 종업원관련 비용이 2013년 2,534십억원에서 2014년 2,593십억원으로 2.3%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며, 이는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의 2013년 287십억원에서 2014년 261십억원으로의 9.1% 감소분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됨. 종업원관련비용의 증가는 주로 기타단기종업원급여가 2013년 1,641십억원에서 2014년 1,700십억원으로 3.6% 증가한 때문이며 이는 당사 직원의 평균 임금의 상승을 반영함.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의 9.1% 감소는 소프트웨어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기타영업손익

2015년과 2014년 비교

당사 기타영업비용은 2014년 1,041십억원에서 2015년 716십억원으로 31.2% 감소함. 이는 기타 영업수익의 2014년 3,100십억원에서 2015년 4,598십억원으로 48.3% 증가분이 기타 영업비용의 2014년 4,141십억원에서 2015년 5,314십억원으로의 28.3% 증가분을 능가하였기 때문임.

2014년과 2013년 비교

당사 기타영업손익은 2013년 1,305십억원에서 2014년 1,041십억원으로 20.2% 감소함. 이는 기타 영업비용의 2013년 4,442십억원에서 2014년 4,141십억원으로 6.8% 감소분이 기타 영업수익의 2013년 3,137십억원에서 2014년 3,100십억원으로의 1.2% 감소분을 능가하였기 때문임.

원문의 비이자수익 부분은 IFRS 에 기초한 것이고,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비이자수익 부분은 다른 감사보고서상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의 내용에 해당.

법인세비용 (환급)

2015년과 2014년 비교

법인세비용은 2014년 대비 2015년 세전 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비과세수익의 증가에 따른 당기법인세비용이 2014년 513십억원에서 2015년 342십억원으로 33.3% 감소한 것에 기인하여 2014년 486십억원에서 2015년 437십억원으로 10.1% 감소하였음. 법정세율은 2014년 및 2015년에 각 24.2%이었음. 실질유효세율은 2014년 25.6% 대비 2015년 20.2%이었음.

2014년과 2013년 비교

법인세비용은 주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환급)이 2013년 8십억원의 법인세비용에서 2014년 79십억원의 법인세환급으로 변동한 것뿐만 아니라, 전기 이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2014년에 인식한 조정사항의 감소로 인해, 2013년 541십억원에서 2014년 486십억원으로 10.2% 감소하였음. 법정세율은 2012년, 2013년 및 2014년에 각 24.2%였음. 실질유효세율은 2013년 29.8% 대비 2014년 25.6%이었음.

당기순이익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1,275십억원, 2014년 1,415십억원 대비 2015년 1,727십억원임.

주요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첨부 표41)

당사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요 사업부문으로 구성됨: 가계금융, 기업금융, 기타금융, 신용 카드, 투자증권, 생명보험.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에 대하여는 표41) 참조.

가계금융 부문

원문의 해당 부분은 KB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가계금융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가계금융 부분은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이 사업부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4년 164십억원에서 2015년 30십억원으로 81.7% 감소함.

가계금융의 이자수익은 2014년 4,433십억원에서 2015년 3,858십억원으로 13.0% 감소하였는바, 이는 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이자율의 전반적 인하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대출 및 기타 가계대출의 평균 수익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당 대출의 평균잔액 증가분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음.

당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자금조달재원은 가계부문 예금이며, 이는 당사 예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이 부문의 이자 비용은 2014년 2,353십억원에서 2015년 1,756십억원으로 25.4%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정기예금의 평균잔액의 증가에 따른 국내 이자율의 전반적 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고객의 정기예금의 평균 비용 감소에 기인한 것임.

순수수료이익은 수익증권 판매대행 및 원화로 지급받은 보증료로 인한 순수수료이익 증가에 따라 2014년 525십억원에서 2015년 570십억원으로 8.6% 증가함.

당기순이익인식금융상품순손실은 2014년 20십억원에서 2015년 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 인식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자산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2015년에는 발생하지 않음.

순기타영업비용은 주로 사업부문간 차입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 421십억원에서 2015년 556십억원으로 32.1% 증가함.

일반관리비는 주로 국민은행이 2015년에 실시한 희망퇴직프로그램에 따른 종업원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2014년 1,696십억원에서 2015년 2,006십억원으로 18.3% 증가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연체율 감소로 인한 가계대출의 자산건전성 향상에 주로 기인하여 2014년 304십억원에서 2015년 80십억원으로 73.7% 감소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이 사업부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3년 264십억원에서 2014년 164십억원으로 37.9% 감소함.

가계금융의 이자수익은 2013년 4,786십억원에서 2014년 4,433십억원으로 7.4% 감소하였는바, 이는 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이자율의 전반적 인하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대출 및 기타 가계대출의 평균 수익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당 대출의 평균잔액 증가분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음.

이자 비용은 2013년 2,773십억원에서 2014년 2,353십억원으로 15.1%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이자율의 전반적 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고객의 정기예금의 평균 비용 감소에 기인한 것임.

이 부문의 순수수료이익은 방카슈랑스 운영 및 수익증권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 수익의 감소에 따라 2013년 612십억원에서 2014년 525십억원으로 14.2% 감소함.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손실은 주로 파생상품 평가손실액 증가로 인하여 2013년 2십억원에서 2014년 20십억원으로 10배 증가함.

순기타영업비용은 사업부문 간 차입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2013년 261십억원에서 2014년 421십억원으로 61.3% 증가함.

일반관리비는 주로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교육세 감소로 인하여 2013년 1,740십억원에서 2014년 1,696십억원으로 2.5% 감소함. 교육세는 금융기관의 수익(revenue)에 대해 징수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연체율 감소로 인한 가계대출의 자산건전성 향상에 주로 기인하여 2013년 358십억원에서 2014년 304십억원으로 15.1% 감소함.

기업금융 부문

원문의 해당 부분은 KB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기업금융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기업금융부분은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 (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이 사업부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4년 504십억원에서 2015년 158십억원으로 68.7% 감소함.

기업금융 이자수익은 2014년 4,009십억원에서 2015년 3,514십억원으로 12.3% 감소함. 이는 주로 국내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는 기업대출 평균수익의 감소가 원인임. 이러한 감소효과는 기업대출 평균잔액의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됨.

이자비용은 2014년 1,560십억원에서 2015년 1,193십억원으로 23.5%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는 국내 기업고객의 정기예금 평균비용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순수수료이익은 주로 신탁 관련 수수료 수익의 증가로 일부 상쇄된 기타 원화 수수료 비용의 증가에 기인하여, 2014년 237십억원에서 2015년 233십억원으로 1.7% 감소함.

순기타영업비용은 사업부문간 차입 관련 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2014년 906십억원에서 2015년 834십억원으로 7.9% 감소함.

일반관리비는 주로 국민은행이 2015년에 실시한 희망퇴직프로그램에 따른 종업원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2014년 711십억원에서 2015년 847십억원으로 19.1% 증가함.

이 부문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주로 기업대출 잔액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 567십억원에서 2015년 716십억원으로 26.3% 증가함.

이 부문의 순기타영업외수익은 2014년 2십억원에서 2015년 1십억원으로 50.0% 감소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이 사업부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3년 210십억원에서 2014년 504십억원으로 140.0% 증가함.

기업금융 이자수익은 2013년 4,391십억원에서 2014년 4,009십억원으로 8.7% 감소함. 이는 주로 국내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는 기업대출 평균수익의 감소가 원인임. 이러한 감소효과는 기업대출 평균잔액의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됨.

이자비용은 2013년 1,840십억원에서 2014년 1,560십억원으로 15.2%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는 국내 기업고객의 정기예금 평균비용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순수수료이익은 주로 외환수입수수료 및 지급보증관련수수료의 감소에 기인하여, 2013년 241십억원에서 2014년 237십억원으로 1.7% 감소함.

순기타영업비용은 사업부문 간 차입 관련 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2013년 1,055십억원에서 2014년 906십억원으로 14.1% 감소함.

일반관리비는 주로 해당 부문의 상대적 대출규모 기준으로 배분된 인건비의 감소로 인하여 2013년 822십억원에서 2014년 711십억원으로 13.5% 감소함.

이 부문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주로 연체율 감소로 인한 자산건전성의 전반적인 향상에 기 인하여 2013년 706십억원에서 2014년 567십억원으로 19.7% 감소함.

이 부문의 순기타영업외수익은 2013년 1십억원에서 2014년 2십억원으로 증가함.

기타 부문

원문의 해당부분은 KB 국민은행의 가계금융 및 기업금융을 제외한 기타금융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은행 부문 사업에는 재무관리 및 KB 국민은행의 “백오피스” 관리 업무를 포함함. 자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기타 부분은 IFRS에 따른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이 사업부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4년 692십억원에서 2015년 1,193십억원으로 72.4% 증가함.

기타금융 이자수익은 2014년 1,261십억원에서 2015년 1,016십억원으로 19.4%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채무증권 평균잔액 증가로 부분 상쇄된 2015년도의 국내 저금리 환경으로 인한 KB 국민은행의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의 채무증권 평균수익률 감소에 기인함.

이자 비용은 2014년 819십억원에서 2015년 727십억원으로 11.2%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사채평균금액의 증가로 부분 상쇄된 2015년 국내 저금리 기조로 인한 사채 평균비용의 감소에 기인함.

수수료이익은 2014년 316십억원에서 2015년 354십억원으로 12.0%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계열사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수익의 증가에 기인함.

이 부문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이익은 주로 매매목적 금융상품관련 순이익의 감소로 인하여 2014년 376십억원에서 2015년 287십억원으로 23.7% 감소함.

이 부문의 순기타영업이익은 주로 사업부문간 대출로 인한 수익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 558십억원에서 2015년 968십억원으로 73.5% 증가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2014년 966십억원 대비 2015년 960십억원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이 부문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주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채권 충당금전입액 감소로 인하여 2014년 17십억원의 전입에서 2015년 55십억원의 환입으로 변동함.

관계기업 투자이익은 주로 KB 국민은행의 JSC Bank CenterCredit 투자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 18십억원에서 2015년 8십억원으로 55.6% 감소함.

순기타영업외손익은 주로 매매목적 자산 손상차손의 감소 및 법적 판결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포함하는 기타영업외손익의 감소로 인하여 2014년 35십억원의 비용에서 2015년 192십억원의 수익으로 변동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이 사업부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3년 738십억원에서 2014년 692십억원으로 6.2% 감소함.

기타금융 이자수익은 2013년 1,418십억원에서 2014년 1,261십억원으로 11.1%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채무증권 평균잔액 감소 뿐만 아니라 2014년도의 국내 저금리 환경으로 인한, KB 국민은행의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의 채무증권 평균수익률 감소에 기인함.

이자 비용은 2013년 822십억원 대비 2014년 819십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순수수료이익은 2013년 252십억원에서 2014년 316십억원으로 25.4%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계열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의 증가에 기인함.

이 부문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이익은 주로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관련 순이익의 감소로 인하여 2013년 693십억원에서 2014년 376십억원으로 45.7% 감소함.

이 부문의 순기타영업이익은 사업부문 간 대출에 대한 수익의 증가로 인하여 2013년 261십억원에서 2014년 558십억원으로 113.8% 증가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급여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2013년 835십억원에서 2014년 966십억원으로 15.7% 증가함.

이 부문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채권 충당금전입액 증가로 인하여 2013년 1십억원에서 2014년 17십억원의 전입으로 17배 증가함.

관계기업 투자손익은 주로 2014년 KB 국민은행의 JSC Bank CenterCredit 투자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감소로 인하여 2013년 203십억원의 손실에서 2014년 18십억원의 이익으로 변동함.

순기타영업외비용은 주로 설정되었던 소송 총당부채보다 큰 액수를 실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에 따른 기타영업외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2013년 25십억원에서 2014년 35십억원으로 40.0% 증가함.

신용카드 부문

원문의 해당 부분은 KB 국민카드에 의해 수행되는 신용카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신용카드 사업 부분은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이 사업부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4년 433십억원에서 2015년 462십억원으로 6.7% 증가함.

신용카드사업 이자수익은 2014년 1,354십억원에서 2015년 1,306십억원으로 3.5% 감소함. 이러한 감소는 2015년 국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평균수익률 감소에 주로 기인하며, 이는 일부 신용카드채권의 평균잔액의 증가에 의해 상쇄됨.

이자비용은 주로 2015년 국내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 부문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인하여 2014년 360십억원에서 2015년 326십억원으로 9.4% 감소함.

수수료이익은 주로 체크카드 관련 수수료이익 및 기타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에는 95십억원에서 2015년 109십억원으로 14.7% 증가함. 체크카드 관련 수수료이익의 증가는 주로 당사 고객들의 현금을 대신한 체크카드 사용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기타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이익의 증가는 당사 고객들의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15년에 한국 정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세금 납부한도를 폐지함.

이 부문의 순기타영업비용은 주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사용량 증가를 반영하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되는 누적포인트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 32십억원에서 2015년 36십억원으로 12.5% 증가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제세공과금 및 광고 비용을 포함하는 기타 일반관리비의 감소로 인하여 2014년 341십억원에서 2015년 333십억원으로 2.3% 감소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주로 연체율 감소로 인한 당사 채권의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향상에 기인하여, 2014년 278십억원에서 2015년 246십억원으로 11.5% 감소함.

순기타영업외비용은 주로 2014년 제3자의 KB 국민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을 위한 충당금 증가에 기인한 기타영업외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2014년 5십억원에서 2015년 12십억원으로 140.0% 증가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이 사업부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3년 502십억원에서 2014년 433십억원으로 13.7% 감소함.

신용카드사업 이자수익은 2013년 1,436십억원에서 2014년 1,354십억원으로 5.7% 감소함. 이러한 감소는 2014년 국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평균수익률 감소에 주로 기인하며, 신용카드채권의 평균잔액의 감소에도 영향 받음.

이자비용은 주로 2014년 국내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 부문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인하여 2013년 379십억원과 비교하여 2014년 360십억원으로 5.0% 감소함.

순수수료이익은 2013년에는 185십억원에서 2014년에는 95십억원으로 48.6%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직불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통신망 제공자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관련수수료비용의 증가에 기인함.

이 부문의 순기타영업비용은 주로 2014년 당사의 포인트 제도 변경에 따른 기타 영업비용으로 인식되는 누적포인트 감소에 기인하여 2013년 39십억원에서 2014년 32십억원으로 17.9% 감소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통신비 및 소모품비를 포함한 기타일반관리비의 감소에 기인하여 2013년 354십억원에서 2014년 341십억원으로 3.7% 감소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주로 연체율 감소로 인한 당사 채권의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향상에 기인하여, 2013년 345십억원에서 2014년 278십억원으로 19.4% 감소함.

순기타영업외비용은 주로 KB 국민카드 기부금 증가뿐만 아니라 여신 사후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기타영업외비용의 증가에 기인하여, 2013년 2십억원에서 2014년 5십억원으로 150.0% 증가함.

증권 부문

원문의 해당 부분은 주로 KB 투자증권이 수행하는 위탁매매, 투자금융, 증권투자, 매매 및 기타 자본시장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투자증권 사업 부분은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4년 39십억원에서 2015년 63십억원으로 61.5% 증가함.

이자수익은 2014년 45십억원에서 2015년 50십억원으로 11.1% 증가함. 이러한 증가는 주로 증권담보대출의 평균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 부문의 이자비용은 2014년 27십억원에서 2015년 25십억원으로 7.4% 감소하였는바, 이는 국내 저금리 기조와 콜머니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평균잔액의 감소 영향을 받은 당사 평균 차입비용의 전반적 감소에 기인함.

순수수료이익은 2014년 76십억원에서 2015년 98십억원으로 28.9%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위탁수수료 증가에 따른 증권인수업무 관련 수수료 증가에 기인함.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이익은 주로 매매목적금융자산 및 매매목적파생상품에 대한 순수익 증가로 인하여 2014년 47십억원에서 2015년 51십억원으로 8.5% 증가함.

순기타영업이익은 주로 외화환산순이익 증가에 기인하여, 2014년 5십억원에서 2015년 14십억원으

로 180.0% 증가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급여 비용 및 성과급 비용 증가에 기인하여 2014년 103십억원에서 2015년 120십억원으로 16.5% 증가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2014년 4십억원에서 2015년 5십억원으로 25.0% 증가함.

순기타비영업비용은 2014년 및 2015년에 0원으로 유지됨.

2014년과 2013년 비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3년 17십억원에서 2014년 39십억원으로 129.4% 증가함.

이자수익은 2013년 41십억원에서 2014년 45십억원으로 9.8% 증가함. 이러한 증가는 주로 증권담보 대출의 평균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 부문의 이자비용은 2013년 17십억원에서 2014년 27십억원으로 58.8% 증가하였는바, 이는 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평균잔액의 증가에 기인함.

수수료이익은 2013년과 2014년 각 76십억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이익은 주로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매매목적파생상품에 대한 순수익 증가로 인하여 2013년 19십억원에서 2014년 47십억원으로 147.4% 증가함.

순기타영업이익은 주로 외화환산손익 증가에 기인하여, 2013년 1십억원에서 2014년 5십억원으로 5배 증가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성과급 비용 증가에 기인하여 2013년 96십억원에서 2014년 103십억원으로 7.3% 증가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2013년 5십억원에서 2014년 4십억원으로 20.0% 감소함.

순기타비영업비용은 2013년 2십억원에서 2014년 0원으로 감소함.

생명보험 부문

원문의 해당부분은 KB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생명보험과 자산관리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생명보험 사업 부분은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4년 12십억원에서 2015년 19십억원으로 58.3% 증가함.

이자수익은 2014년 227십억원에서 2015년 236십억원으로 4.0% 증가함. 이는 주로 KB 생명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보유 채무증권 포트폴리오의 특수채 평균잔액 증가 및 부동산담보부 대출의 평균잔액 증가에 기인함. 특수채는 일반적으로 국채보다 만기수익률이 높으며, 2015년에 KB 생명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보유 채무증권 포트폴리오의 특수채 비율은 2014년 보다 높았음.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이익은 주로 수익증권 판매 수익 감소로 인하여 2014년 10십억원에서 2015년 8십억원으로 20.0% 감소함.

순기타영업비용은 주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상품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익 증가로 인하여, 2014년 163십억원에서 2015년 136십억원으로 16.6% 감소함. 이러한 증가의 영향은 주로 경제상황 악화에 기인한 해약 보험계약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감소로 증가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수수료 비용, 세일즈 홍보 및 광고 비용, 그리고 세금증가에 기인하여, 2014년 60십억원에서 2015년 79십억원으로 31.7% 증가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주로 생명보험 대출과 관련한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인하여 2014년 1십억원에서 2015년 10십억원으로 10배 증가함.

순기타비영업비용은 2014년 1십억원에서 2015년 0원으로 감소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2십억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이자수익은 2013년 200십억원에서 2014년 227십억원으로 13.5% 증가함. 이는 주로 KB 생명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보유 채무증권(특히 특수채)의 평균잔액 증가에 기인함.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이익은 주로 수익증권 판매 수익 감소로 인하여 2013년 18십억원에서 2014년 10십억원으로 44.4% 감소함.

순기타영업비용은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해약금 또는 중도인출액 증가에 따른 보험 수익의 감소에 기인하여, 2013년 154십억원에서 2014년 163십억원으로 5.8% 증가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임차료와 급여비용 증가에 기인하여, 2013년 51십억원에서 2014년 60십억원으로 17.6% 증가함.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십억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순기타비영업비용은 2013년 0십억원에서 2014년 1십억원으로 변동됨.

기타 부문

원문의 해당부분은 당사와 자회사들의 기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기타 사업 부분은 감사보고서 주석 및 사업보고서 XI.재무제표 등 1.나.연결손익계산서(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기타 부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4년 148십억원에서 2015년 391십억원으로 164.2% 증가함.

이자수익은 2014년 326십억원에서 2015년 414십억원으로 27.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KB 캐피탈 대출 이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이자비용은 2014년 123십억원에서 2015년 163십억원으로 32.5%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KB 캐피탈 사채 이자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순수수료이익은 2014년 134십억원에서 2015년 169십억원으로 26.1%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KB 캐피탈이 수취한 렌탈료수익 및 리스관련수수료수익의 증가 및 KB 자산운용이 수취한 신탁보수 관련수수료 및 대리사무취급수수료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손익은 KB 메자닌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가 보유한 파생상품평가손익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2014년 26십억원에서 2015년 15십억원으로 42.3% 감소함.

순기타영업이익은 주로 KB 캐피탈과 KB 저축은행이 보유한 무수익여신 매각으로 인한 기타 영업이익의 감소 및 KB 투자증권이 보유한 매매가능 지분증권 처분이익 감소에 기인하여, 2014년 70십억원에서 2015년 59십억원으로 15.7% 감소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KB 캐피탈, KB 자산운용 및 KB 부동산신탁의 급여비용 증가 및 KB 캐피탈의 수수료비용 및 기타 일반관리비 증가에 기인하여, 2014년 189십억원에서 2015년 227십억원으로 20.1% 증가함.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주로 KB 캐피탈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감소 및 KB 저축은행의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증가에 기인한 KB 캐피탈 및 KB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 향상에 기인하여, 2014년 57십억원에서 2015년 35십억원으로 38.6% 감소하였음.

관계기업투자수익(비용)은 주로 KB 손해보험이 2015년 계열사로 추가된 것에 기인하여 2014년 14십억원 비용에서 2015년 195십억원 수익으로 변동함.

순기타비영업비용은 주로 KB 저축은행이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의 감소로 부분 상쇄된 KB 자산운용의 소송 충당금의 증가에 기인하여 2014년 25십억원에서 2015년 35십억원으로 40.0% 증가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기타 부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3년 91십억원에서 2014년 148십억원으로 62.6% 증가함.

이자수익은 2013년 106십억원에서 2014년 326십억원으로 207.5%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2014년부터 KB 캐피탈이 이 부문에 포함됨에 따라 대출 이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이자비용은 2013년 25십억원에서 2014년 123십억원으로 392.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2014년부터 KB 캐피탈이 이 부문에 포함된 것에 기인함.

순수수료이익은 2013년 118십억원 대비 2014년 134십억원으로 13.6%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2014년부터 KB 캐피탈이 이 부문에 포함되어 렌탈료수익 및 리스관련수수료수익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순손익은 KB Mezzanine Private Securities Fund 1이 보유한 파생상품평가순이익 감소(이는 K-star 국고채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의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순이익 증가분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됨)에 주로 기인하여, 2013년 29십억원에서 2014년 26십억원으로 10.3% 감소함.

순기타영업이익은 주로 KB 캐피탈과 KB 저축은행이 보유한 무수익여신 매각으로 인한 기타 영업이익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2013년 40십억원에서 2014년 70십억원으로 75.0% 증가함.

이 부문의 일반관리비는 주로 2014년부터 KB 캐피탈이 이 부문에 포함된 것에 기인하여, 2013년 142십억원에서 2014년 189십억원으로 33.1% 증가함.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주로 2014년부터 KB 캐피탈이 이 부문에 포함된 것에 기인하여, 2013년의 28십억원에서 2014년 57십억원으로 103.6% 증가하였음.

관계기업투자손실은 주로 손상차손의 감소에 기인하여 2013년 38십억원에서 2014년 14십억원으로 63.2% 감소함.

순기타비영업수익(비용)은 주로 KB 저축은행이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의 증가 및 KB 자산운용의 기타영업외수익의 감소에 기인하여 2013년 31십억원의 수익에서 2014년 25십억원의 비용으로 변동됨.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

재무상태

자산

원문의 자산 부분은 IFRS 에 기초한 것이고,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

의 자산 부분은 사업보고서 Ⅲ.재무에 관한 사항, XI.재무제표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당사의 자산 총액은 2014.12.31. 현재 308,356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329,065십억원으로 6.7% 증가함. 이는 주로 원화대출채권이 2014.12.31. 현재 200,345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212,777십억원으로 6.2% 증가한 것과 금융투자자산이 2014.12.31. 현재 34,961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39,137십억원으로 11.9%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당사의 자산 총액은 2013.12.31. 현재 292,168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308,356십억원으로 5.5% 증가함. 이는 주로 대출채권이 2013.12.31. 현재 219,001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231,450십억원으로 5.7% 증가한 것에 기인함. 이러한 대출채권의 증가는 주로 원화대출채권이 2013.12.31. 현재 189,516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200,345십억원으로 5.7%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금액의 2013.12.31. 현재 1,683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1,082십억원으로의 35.7% 감소분, 외화대출금액의 2013.12.31. 현재 3,055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2,624십억원으로의 14.1% 감소분, 콜론의 2013.12.31. 현재 697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292십억원으로의 58.1% 감소분에 의해 일부 상쇄됨.

부채와 자본

원문의 부채와 자본 부분은 IFRS 에 기초한 것이고,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부채와 자본 부분은 사업보고서 Ⅲ.재무에 관한 사항, XI.재무제표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2015년과 2014년 비교

당사의 부채 총액은 2014.12.31. 현재 280,843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300,163십억원으로 6.9% 증가함. 이러한 증가는 주로 예금이 2014.12.31. 현재 211,549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224,268십억원으로 6.0% 증가한 것에 기인함. 당사의 예금은 주로 요구불예금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함.

당사의 자본 총액은 2014.12.31. 현재 27,513십억원에서 2015.12.31. 현재 28,902십억원으로 5.0% 증가함. 이러한 증가는 주로 2015년 당사의 이익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에 기인함.

2014년과 2013년 비교

당사의 부채 총액은 2013.12.31. 현재 266,185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280,843십억원으로 5.5% 증가함. 이러한 증가는 주로 예금이 2013.12.31. 현재 200,882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211,549십억원으로 5.3% 증가한 것에 기인함. 당사의 예금은 주로 요구불예금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함.

당사의 자본 총액은 2013.12.31. 현재 25,983십억원에서 2014.12.31. 현재 27,513십억원으로 5.9% 증가함. 이러한 증가는 2014년 당사의 이익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에 기인함.

유동성

당사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고객 예금부문임. 고객예금액은 2013.12.31. 현재 200,882십억원, 2014.12.31. 현재 211,549십억원, 2015.12.31. 현재 224,268십억원으로 당사의 조달자금 총액 중 각 83.0% 및 82.4%, 82.1%를 차지하였음. 당사는 고객예금을 유동성 확보에 이용하는 등 당사의 영업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당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Item 4.B. 사업의 개황-자금조달” 부분 참조.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원화 및 외화 유동성비율(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각 은행들이 유동성비율 및 외화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함. “Item 4.B. 사업의 개황-감독 및 규제-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과 “Item 4.B. 사업의 개황-감독 및 규제-은행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 참조.

당사는 예금인출 및 사채 및 차입부채의 만기도래뿐 아니라, 대출, 유가증권매매 및 투자, 유가증권매매 포지션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당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채의 만기상환 및 투자자금을 완전히 조달하는 것을 유동성관리의 목표로 하고 있음. 당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관하여는 “Item 11.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정보-유동성리스크관리” 부분 참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모든 사업은 당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따라서 당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직접 차입, 사채 발행 및 지분증권의 발행에 의존함. 당사는 당사의 자회사들로부터 2013년도에 282십억원, 2014년도에 509십억원, 2015년도에 316십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음. “Item 3.D. 투자 리스크 요소-당사의 금융지주회사구조와 전략 관련 리스크” 부분 참조.

자산 담보화: 첨부 표42)

2015.12.31. 현재 당사의 미래 자금 조달 및 담보 설정을 위한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과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에 관하여는 표42) 참조.

계약상 현금지급 의무: 첨부 표43)

2015.12.31. 현재 당사의 계약상 현금지급 의무에 관하여는 표43) 참조.

약정사항 및 보증: 첨부 표44)

2015.12.31. 현재 약정사항 및 보증은 표44) 참조. 약정사항 및 보증은 연결재무상태표에 포함되지 않음.

자본적정성: 첨부 표45)

KB 국민은행은 한국 은행들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적정성기준을 따라야 함. 2013년 12월 이전에 적용된 요건은 2004년에 BIS 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도입한 Basel II 에 기초함. 2013년 7월에 제정된 개정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에 개시된 적용 요건은 2009년 12월 BIS 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도입한 Basel III 에 기초함. 개정 금융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국내 모든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함. “Item 4.B. 사업의 개황-감독 및 규제-은행에 적용되는 주요규정” 부분 참조.

KB 국민은행의 총자본비율은 2015.12.31. 현재 16.01%임.

2015.12.31.(Basel III 기준), 2014.12.31.(Basel III 기준) 및 2013.12.31.(Basel III 기준) 현재 KB 국민은행의 자본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표45) 참조.

당사는 은행 지주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관계 규정에 따라 최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최근 회계 관련 공표

Item 5.C. 연구 및 개발, 특허 및 라이선스 : 해당사항 없음.

Item 5.D. 시장동향에 관한 정보

이에 관하여는 “Item 5.A. 영업실적”과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 부분 참조.

Item 5.E. 난외계정

이에 관하여는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재무상태-계약상 현금지급의무, 약정사항 및 보증” 부분 참조.

Item 5.F. 계약상 의무

“Item 5B. 유동성 및 자본조달재원-재무상태-계약상 현금지급 의무” 부분 참조.

Item 5.G. Safe Harbor

“미래상황에 대한 서술(Forward-Looking Statements)” 참조.

Item 6. 이사, 임원 및 직원

Item 6.A. 이사 및 임원

이사회

당사의 이사회는 Form 20-F 제출일 현재 한 명의 사내이사, 한 명의 비상무이사 및 6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당사의 경영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함. 기타 원문의 이사회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이사회 부분은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이사회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사내이사

윤종규는 Form 20-F 제출일 현재 당사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임. 2014년 11월부터 사내이사를 역임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문의 “Item 6.A. 이사 및 임원” 참조. 다만, 원문의 사내이사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가.임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비상무이사

이홍은 2015년 3월부터 비상무이사를 역임함. 현재 이홍은 KB 국민은행 부행장이자 전략경영기획 그룹장임. 이홍은 이전에 KB 국민은행의 영업그룹장 및 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을 역임하였음. 서울 대학교에서 문학사학위를 받고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음.

사외이사

당사의 Form 20-F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최영휘, 유석렬, 이(마이클)병남, 박재하, 김(유니스)경희, 한종수로 총 6명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문의 “Item 6.A. 이사 및 임원” 참조. 다만, 원문의 사외이사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가.임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미등기임원

당사의 미등기임원은 김옥찬, 김기현, 허정수, 이동철, 박영태, 박재홍, 조경엽, 강대명, 김기환, 신홍섭, 조영혁, 임필규로 총 12명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문의 “Item 6.A. 이사 및 임원” 참조. 다만, 원문의 임원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가.임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6.B. 보상

2015년 연간 기준으로 당사 및 당사 자회사들이 회장(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및 미등기임원에게 지급한 총 보수 및 주식을 제외한 현물급여는 5,650백만 원이며, 당사는 2015년 연간기준으로 당사의 회장(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및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총당금으로 93백만원을 적립하였음.

KB 국민은행은 최고경영자, 기타 이사들, 미등기임원들과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바 있음. 당사가 설립된 2008년 9월 포괄적 주식이전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당사의 보통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됨. “Item 6.E. 주식 소유-주식매수선택권”을 참조하기 바람. 부여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당사는 행사가격과 행사당일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음.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옵션 행사에 대한 제한이 소멸하여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부여일로부터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행사 가능하였음.

2015년 당사는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따라 교부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식보상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함. 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당사의 본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주석31을 참조하기 바람.

2008년 당사는 주식관련 보상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에 따라서, 당사는 당사 및 자회사의 일부 이사, 미등기임원 및 임원과 성과연동 주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특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로서 당사의 보통주(또는 주식의 시장가격에 따른 금액)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관하여 “Item 6.E. 주식 소유—성과연동 주식 계약” 참조. 2015년 당사는 성과연동 주식계약에 따른 주식보상 관련 비용으로서 17,429백만원을 부담하였음. 당사의 본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주석31.2.2를 참조하기 바람.

기타 원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2.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6.C. 이사회의 활동

위 부분은 “Item 6.A. 이사 및 임원” 부분 참조.

이사회내 소위원회

이사회내 소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있음. 기타 원문의 이사회내 소위원회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이사회내의 위원회 부분은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다. 이사회내 위원회(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6.D. 직원

2015.12.31. 현재 KB 금융지주의 상근직원은 181명(10명의 미등기임원 제외), KB 국민은행의 상근직원은 19,855명(임원 제외), 기타 자회사의 상근직원은 6,658명(임원 제외)임. 기타 원문의 직원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직원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나.직원의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6.E. 주식 소유

보통주

2016.3.31. 현재 당사의 이사들과 임원들이 소유하는 당사의 보통주 총수는 19,784주이며, 이는 당사의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약 0.005%에 해당함. 상기의 어떠한 임원도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당사의 보통주 유통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

2016.3.31. 현재 KB 국민은행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전부가 행사되었고, 해당 일자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0주임. 기타 원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2.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성과연동 주식계약

2008년에 당사가 수립한 주식관련 보상계획에 따라 당사는 당사 및 자회사의 일부 이사, 미등기임원 및 임원과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연동 주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특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로서 당사의 보통주(또는 주식의 시장가격에 따른 금액)를 부여할 수 있음. 2010년 1월부터 사외이사와 회사는 성과연동 주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성과연동 주식계약에 따른 당사 및 자회사의 이사, 미등기임원 및 임원에 대한 실제 성과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지급시의 시가에 의하여 당사 주식에 상응하는 금액의 형태로 이루어졌음.

Item 7. 주요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Item 7.A. 주요 주주

2015.12.31. 현재 당사의 5%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공단(9.20%) 및 Bank of New York Mellon(8.07%). 당사 ADS 예탁기관)임. 기타 원문의 5% 이상 주주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다만, 원문의 5% 이상 주주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주주에 관한 사항 3.가.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7.B.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2015년 말 현재 당사 및 KB 국민은행의 미등기임원 및 이사들에 대하여 2,308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당사는 또한 동 일자 기준으로 당사의 이사들이나 미등기임원이 이어나 미

등기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당사의 본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43을 참조하기 바람. 상기의 모든 대출은 금리 및 담보를 포함하여, 다른 대출 차주와의 비교 가능한 거래에서 당시 일반적인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상적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상적인 회수 위험을 초과하거나 기타 불리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

당사의 이사들이나 임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사가 실행한 거래 중에 그 성질이나 조건이 특이하거나 올해나 직전연도 중에 실행한 거래 중에 당사의 사업에 중요하거나 이전연도에 실시되었으나 현재 어떠한 점에서 미지급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Item 7.C. 전문가 및 자문인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Item 8. 재무정보

Item 8.A. 연결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

“Item 18. 재무제표” 참조.

법적 분쟁

아래에서 요약된 법적 분쟁을 제외하고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분쟁은 없음.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관련표준약관(약정서포함)을 개정한 후 담보대출취급시 은행들이 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약관의 사용을 권고하였음. 이후 은행연합회와 KB 국민은행을 포함한 16개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경약관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하였음. 이 판결 이후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변경 권고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담보대출계약에 의해 저당권설정 비용을 부담한 KB 국민은행의 일부 고객들이 KB 국민은행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133건의 소송을 제기함. 2016.3.7. 현재 132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1개 소송이 항소심 법원에 계류중임. 2016.3.7.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비 소송의 총 소송가액은 약 0.4십억원임. KB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소송의 최종 결과는 현재 예측하기 어려움 .

2010년 7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자산을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BLMIS”)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Fairfield Sentry Limited (“Fairfield”)는 Fairfield 에 투자한 고객들의 수탁은행으로 활동한 KB 국민은행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Fairfield 는 BLMIS 의 사기행위에 의한 과대평가된 가치에 의존하여 KB 국민은행에 주식 환매대금으로 약 42 백만달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음. 본 사건은 현재 뉴욕주 대법원에서 진행중임. Fairfield 는 상환지급액의 회수를 위하여 수많은 펀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였음.

2012년 5월, BLMIS의 청산을 위해 임명된 청산인은 KB 국민은행을 상대로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청산인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 KB 국민은행이 Fairfield로부터 환매대금으로 약 42백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 청산인은 Fairfield는 BLMIS에 투자한 “자펀드(feeder fund)”이며 BLMIS 자펀드로부터의 환매는 미 파산법 및 뉴욕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고 반환될 수 있다고 주장함. 본 소송은 현재 동 법원에 진행중임. 청산인은 많은 기타 기관들을 상대로 유사한 반환(clawback) 소송을 제기함.

2012년 6월, KB 국민은행의 복권 시스템용역업체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는, KB 국민은행이 한국 정부와 계약기간 5년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KLS와 계약기간 7년의 시스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KLS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이전 복권운영기관이자 수탁자인 KB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한국 정부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제2기 로또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KB 국민은행은 KLS와의 시스템용역계약을 해지함. 2015년 3월, KLS는 청구금액을 108십억원으로 확장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6월 KLS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KLS가 항소하였으나 2016년 2월에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KLS의 청구를 기각함. KLS는 이에 불복하여 2016년 3월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음.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증권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의 3개월물 예금증서의 금리 고정에 대한 담합 혐의를 조사하였음. 이는 2012년 12월 은행대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금리가 도입되기 전까지 은행 대출에 대한 기준금리로 사용됨. 2016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KB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상업은행에 송부하였고 각 은행은 2016년 4월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면 2016년 5월에 심리를 거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됨.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 KB 국민은행은 대출 고객 등 기타 당사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청구 및 소송을 당할 수 있음. KB 국민은행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할 예정이고 불리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대해 법원에 불복할 수도 있으나 최종 판정 방향 및 추가적인 법원 심사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당사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결과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의 잠재적 손실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2012년 11월, KB 국민은행은 KB 국민은행의 채무자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OO 조선해양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KB 국민은행은 그 조선회사에 대한 추가 신용 공여에 반대하면서 반대채권자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 그 후 KB 국민은행은 대출채권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3십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12년 11월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해당 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들은 KB 국민은행을 상대로 해당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46십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014년 8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KB 국민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과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KB 국민은행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KB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반소에서는 KB 국민은행 패소판결을 내림. 양 사건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되었으나 2016년 2월에 모두 기각됨. 2016년 2월에 양 사건은 모두 상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임.

2014년 2월 금융위원회는 2013년 상반기에 KCB의 직원이 다수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KB 국민카드의 신규 신용카드 발행 및 이에 관련된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음.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부 영업정지 기간동안 KB 국민카드는

다음의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회원의 신규모집 및 신규카드발급업무 (단,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모집 및 발급 허용).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신규 자금 융통 약정의 체결.
-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의 신규취급.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다수의 피해 고객이 KB 국민카드를 상대로 총 손해배상액이 약 52십 억원에 달하는 총 10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2015.12.31. 현재). 이러한 소송의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 KB 국민카드는 추가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도용 또는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의 기타 소송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기타 소송 부분은 사업보고서 X.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가.중요한 소송사건(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배당

당사는 2015년 총 378,625백만원을 현금배당 하였음. 기타 원문의 배당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배당 부분은 사업보고서 I. 회사의 개요 6.배당에 관한 사항 등 (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Item 8.B. 중요한 변경 : 해당사항 없음.

Item 9. 공모 및 상장

Item 9.A. 공모 및 상장의 세부사항

시장가격 정보

원문의 시장가격 정보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국내와 뉴욕 증권시장의 가격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Global Stock Information Financial Network(GSIFN)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등재되어 있음.

Item 9.B. 판매 계획 : 해당사항 없음.

Item 9.C. 시장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원문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한국거래소의 연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

투자중개업자의 도산시 투자자 보호

한국법상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고객을 위해 예약된 증권은,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투자중개업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그 증권에 대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음. 기타 원문의 투자중개업자의 도산시 투자자 보호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자본시장법, 예금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주식 등의 보유에 대한 보고 의무

한국법상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취득한 주주는 그 5% 이상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 상태와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1% 이상 지분 변동 시에도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기타 원문의 주식등의 보유에 대한 보고의무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자본시장법의 내용에 해당함.

ADS 에 대한 규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함. 그 밖에 ADS 를 국외 유통시장에서 매매하는 행위, ADS 의 원주인 당사의 보통주를 인출하는 행위 또는 인출된 원주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등을 위하여 당국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외국인의 주식취득의 경우 본인이나 국내 상임대리인이 취득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ADS 의 원주를 인출하여 당사의 보통주를 취득한 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주인수권의 행사, 무상신주 또는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함.

국내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ADS 의 발행(ADS 의 신규발행(initial issuance)과 공모, ADS 에 대한 이익배당 또는 주식배당과 관련한 예약을 포함)을 위하여 당사가 예약한 보통주의 총수와 주식예약기관의 명의로 국내보관기관에 예약한 보통주의 수 사이의 차이를 초과하는 보통주에 대하여는, 당사의 동의 없이는 추가로 주식예약기관에 예약할 수 없음. 당사는 주식예약기관에 예약된 보통주의 총수가 어떠한 경우라도 116,583,985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약을 승인하고 있음.

주식에 대한 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한국의 상장주식을 장내에서만 거래하여야 함. 한국의 상장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함. 외국인이 장내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것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기타 원문의 주식에 대한 규제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위원회의 규제에 관련한 내용임.

Item 9.D. 판매 주주 : 해당사항 없음.

Item 9.E. *주식가치 희석* : 해당사항 없음.

Item 9F. *발행 관련 비용* : 해당사항 없음.

Item 10. *추가 정보*

Item 10.A.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

Item 10.B. *정관*

자본에 대한 설명

2015.12.31. 현재 정관상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수는 1,000,000,000주이고, 정관에 따라 보통주식, 배당우선주식, 무의결권부 주식,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이하 위 언급된 주식들 중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음.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까지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정관에 의거 우선배당 무의결권부 주식에 대한 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하고 이사회는 정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 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과 배당지급조건을 결정하여야 함. 또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우선배당무의결권부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까지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재량으로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또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주주들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이나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주주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에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함.

작성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386,351,693주(보통주)임. 기타 원문의 당사 자본에 대한 설명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당사 자본에 대한 설명 부분은 자본시장법, 상법 및 사업보고서 중 I.회사의 개요 4.주식의 총수등과 VII.주주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조직 및 등기

당사는 한국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금융지주회사임.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업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음.

배당 및 기타 배분

-배당

배당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각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수에 따라서 지급됨. 상법 및 기타 관련법상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당사는 신주가 발행되는 연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도 해당 배당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이러한 이익 준비금 외에도 당사는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퇴직금을 적립할 예정임.

-주식배당

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주식배당 이외에도, 상법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주식의 형태로 자본잉여금 및 법정적립금으로부터 해당 자본으로 전입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무상주식은 모든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당사의 정관에 따르면 우선 배당금 비의결권주 보유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형태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함.

신주인수권 및 증자

상법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미발행 수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당사의 주주들은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사 정관 규정에 따라서, (1) 일반공모증자, (2)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우선배정,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 (4) 증권예탁증서 발행에 따른 신주발행, (5)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 (6) 당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임. 기타 원문의 신주인수권 및 증자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신주인수권 및 증자 부분은 사업보고서 VII.주주에 관한 사항 4.주식사무(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의결권

당사 발행의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당사 및 자회사등이 보유한 당사 발행의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기타 원문의 의결권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의결권 부분은 상법과 사업보고서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청산시 권리

당사가 청산되는 경우, 모든 부채, 청산비용과 세금을 지불하고서 남은 자산은 먼저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갖는 종류주식 보유 주주들에게 분배되고, 그 나머지가 보유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분배될 것임.

정기주주총회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기타 원문의 정기주주

총회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정기주주총회 부분은 상법과 사업 보고서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168조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반대주주의 권리

영업양수도, 합병 등의 일정한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기타 원문의 반대주주의 권리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자본시장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해당함.

보유지분에 관한 의무공시

당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특별관계자 또는 공동보유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정부기관에 그들의 주식보유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문의 의무공시에 대한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내용임.

기타 규정

-주주의 명의개서 및 기준일

원문의 주주의 명의개서 및 기준일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원문의 주주의 명의개서 및 기준일 부분은 사업보고서 중 VII.주주에 관한 사항 4.주식사무(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3에 의하여 국내에 이미 공시)에 해당.

한편 당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준일은 매년 3월, 6월 및 9월의 각 말일임.

-영업보고서

원문의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용임.

-주식의 양도

한국법상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서 예탁자계좌부 및 투자자계좌부의 대체 기재를 통하여 양도될 수 있음. 기타 원문의 주식의 양도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용임.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상 (i)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ii) 상법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당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단,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식 매수는 국제결제은행에 근거한 금융지주회사법에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조정 자본 요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또한 당사의 자회사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지주회사법상 당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Item 10.C. *중요 계약*

Item 10.D. *외환 관리*

개요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한국 증권에 대한 투자 및 한국 회사의 한국 외에서의 증권발행이 규제됨. 기타 원문의 외환 관리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관한 내용임.

주식에 대한 규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음. 기타 원문의 주식에 대한 규제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관한 내용임.

Item 10.E. *세제*

미국의 세제

원문의 배당, 매각이나 기타 처분, 해외 납세세금에 대한 고려사항, 정보의 제공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모두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미국 세법상의 내용임.

국내의 세제

국내 거주자,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영위하고 있거나 국내원천소득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래에 기술하는

세제와 관련사항에 적용됨.

보통주식이나 ADS 에 대한 배당에 관한 과세

당사는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22.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할 것임. 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이자 거주자인 자가 한국과 조세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면, 더 낮은 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음. 기타 원문의 배당에 관한 과세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한 내용임.

보통주식이나 ADS 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일반적으로, 당사의 보통주나 ADS 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거주자의 세무상 거주지인 국가가 한국과 체결한 해당 조세계약에 따라 한국발생소득이 비과세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 기타 원문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한 내용임.

조세 조약

한국은 보통주나 ADS 의 배당 및 그 이전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감액하거나 비과세하는 기타 국가들(미국 포함)과의 많은 소득관련 조세조약을 체결함. 기타 원문의 조세조약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관한 내용임.

상속세 및 증여세

ADS 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ADS 를 증여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ADS 의 기존 보유자가 ADS 의 기초자산인 보통주의 소유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기타 원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내용임.

증권거래세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에서 당사의 보통주를 이전하는 경우, 보통주 매도가격의 각 0.1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이 됨. 기타 원문의 증권거래세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내용임.

Item 10.F. **배당 및 지급 대리인 :** 해당사항 없음.

Item 10.G. **전문가의 진술 :** 해당사항 없음.

Item 10.H. **문서의 열람**

원문의 문서의 열람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미국 증권거래법에 관한 내용임.

Item 10.I. 계열사 정보 : 해당사항 없음.

Item 11.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정보

개관

당사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로 은행자회사인 KB 국민은행을 통하여 여신, 트레이딩, 자금 조달 및 영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당사의 리스크관리 목표는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 측정,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를 당사 내 모든 조직에 확립시키도록 하는 것임.

조직

당사는 여러 단계의 리스크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음.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체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여러 하부 리스크관리조직을 지휘함.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과 협력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세부 사항을 수행함. 자회사마다 설치된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리스크관리전략을 결정하고 해당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정책을 실시하며, 그룹 차원에서 정한 리스크지침에 부합하도록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의 활동을 지휘함.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게도 직접 보고함.

리스크관리위원회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수준의 위원회로서 당사의 리스크 전반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1명의 비상무이사 및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이사회에서 수립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의 수립, 당사의 위험성향(Risk Appetite)의 결정, 각 자회사에 대한 위험자본의 배분 및 자회사의 리스크 한도 설정에 대한 승인, 및 당사가 당면한 리스크의 수준과 리스크 관리 정책, 시스템 및 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임.

리스크관리협의회

당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책, 지침 등을 자회사가 시행하도록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과 협조하는 책임을 담당함. 협의회의 임무는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사의 리스크 수준 분석, 리스크를 반영한 통합 자본분배계획 및 자회사 각각에 대한 리스크 한도 조정,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기능통합에 관한 사안 조율 등임.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당사의 최고리스크관리자 및 모든 자회사의 최고리스크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사업조직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직접 보고

하며 분기별로 개최됨.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당사의 각 자회사는 리스크 관리 권한을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로 위임함.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해당 자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를 측정, 감독하고 리스크 관리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자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함. 위원회는 해당 자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 익스포저 한도 설정, 신용 리스크 한도 및 시장 리스크 관련 한도 분배, 자회사가 매입 가능한 시장 리스크 파생상품 같은 관한 판단 등 리스크 관련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림. 각 자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그룹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자회사의 리스크정책, 지침, 한도 및 리스크 허용가능수준 등을 결정하고 자회사 리스크 현황을 모니터링함.
- 자회사 리스크 프로파일을 검토하고 분석함.
- 자회사 내에서 각 사업단위의 위험자본 배분계획 및 리스크 관련 한도를 설정하고 조정함.
- 사업 단위 및 자회사 수준에서 당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정책 및 관행의 이행여부를 감독함.

각 자회사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및 자회사 이사회 의 사외이사로 구성됨.

신용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차주나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예상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관한 리스크) 관리는 여신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균형을 통하여 자산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당사는 신용평가전문가와 신용평가시스템 분석을 통해 차주나 거래상대방의 유형별 신용도를 결정하고 각각의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함.

당사는 모든 신용익스포저를 평가 및 관리함. 당사는 신용리스크관리에 해당하는 예상되는 손실 및 자산에 대한 경제적 자본(재무상태표에 난내 및 난외자산 포함)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 지표로 사용함. 당사는 신용리스크 경제 자본 한도를 할당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관리함. 또한, 당사는 특정 산업 또는 차주에 리스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익스포저 한도를 적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신용 집중 리스크 익스포저를 통제함. 당사가 평가하고 관리하는 신용 익스포저는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출, 증권 투자, 신용장, 은행인수어음과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함. 가용장부자본에 대한 소요 경제적자본의 비율로 표시되는 당사의 위험성향은 연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됨. KB 국민은행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위험성향에 따라 할당된 경제적 자본을 기초로 하여 각 사업부문 및 전행에 대한 경제적 자본을 매월 측정하고, 그 결과를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해당사업부문 및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음.

당사는 예상부도율과 회수율을 차주 및 거래상대방의 예상손실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상손실률은 대출가격의 결정, 대출승인과 각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의 설정 등 여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함. 다만, 위 손실률은 당사의 내부 데이

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대기업고객에 대해서는 부도율과 회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기도 함.

당사의 신용리스크 관리절차는 여신정책의 수립, 신용평가와 대출승인, 산업평가, 총익스포저 관리, 신용리스크 평가, 담보물 평가와 모니터링, 조기경보 및 신용감리, 여신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짐.

신용평가

KB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보증비율 100% 담보부여신과 당행에 예치된 예금으로 충분히 담보되는 대출 및 이와 유사하게 담보 또는 보증되는 대출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 승인 전에 모든 대출신청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은 KB 국민은행의 신용평가전문가 또는 적절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각 차주들과 보증인 등의 신용등급을 부여함.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KB 국민은행이 고려하는 요소에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있는바, 비재무적 요소에는 차주의 신뢰성, 경영 및 운영리스크와 차주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포함됨.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목적으로 AAA 부터 D 까지의 17개 신용등급을, 개인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13개의 신용등급을 사용함.

가계대출 승인절차

주택자금대출과 담보(보증)부대출: 지점의 담당자가 대출신청내용을 대출실행센터로 송부하고, 대출실행센터 담당자가 대출약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후 대출실행하고 있으며, 다만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지점 담당자가 승인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은 담보물의 가치평가, 부채상환능력 및 KB 국민은행 신용평가에 의한 차주 신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대출결정을 함.

KB 국민은행은 주택자금대출과 부동산담보부(또는 보증부)대출의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KB 국민은행이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부동산 가격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예금담보부대출에 대해서, KB 국민은행은 일반적으로 KB 국민은행예금의 95%까지 대출을 승인하고 있음.

주택자금대출과 담보(보증)부대출에 관하여, KB 국민은행은 KB 국민은행의 내부정보와 신용기관의 평가정보에 따라 고객의 현 신용상태에 관한 체크리스트의 각종 항목(직업, 연봉, 신용카드 연체정보, 당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등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적격 고객을 선별함.

무담보가계대출: KB 국민은행은 KB 국민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무담보가계대출의 신청을 검토함. 위 시스템의 주요 효익은 사용자가 누구더라도 정형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신용평가에 관한 경험이 없는 직원도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유동적인 시장상황을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있음.

기업대출 승인절차

KB 국민은행은 대출의 규모와 종류, 신용평가시스템이 평가한 신용리스크 수준, 담보 여부, 담보 가치 등에 따라 기업대출을 승인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대출의 승인은 해당 권한을 가진 하나의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 보통이나, 대출의 규모와 조건 또는 해당 고객의 신용리스크에 따라서 1개 이상의 부서에서 대출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음.

KB 국민은행은, 예금으로 충분히 담보되는 대출신청자 또는 정부나 매우 높은 신용등급자가 보증하는 대출신청자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기업고객을 평가함.

KB 국민은행은 기업형 소호 고객에 대해서는 기업형소호신용평가시스템(SOHO CRS)을 이용함. KB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신용평가시스템(CRS)을 이용하며, 대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신용평가시스템(LCRS)을 적용함. KB 국민은행은 금융기관,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에 관하여서는 FNP CRS 로 알려진 유사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함. SOHO CRS, CRS 와 FNP CRS 모델은 아래와 같은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짐.

1. 재무모형: 재무모형은 재무제표에서 산출된 재무비율의 추세와 차주의 현재 상태를 사용하여 잠재적 차주를 규모(3개) 및 업종(5개)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사용되는 재무비율은 안정성, 현금흐름, 수익성, 활동성 비율을 사용하며, 통계적 모델개발 방법의 하나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발하였음.
2. 비재무모형(Non-financial Model): 비재무모형은 미래채무상환능력, 시장의 전망, 경영능력, 영업능력 등의 여러 가지 정성적 및 정량적인 요소를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3. 기업부실예측점검모형(Default Signal Check Model): 이 모형은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발생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평가함. 신용등급의 최고등급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위 세가지 요소 이외에도 SOHO CRS 는 CEO 평가모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소호의 영업주의 개인적 정보와 거래이력에 관한 정보를 분석함.

당사는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와 같은 외부신용등급심사기관에서 평가한 등급을 신용평가지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

신용카드 승인절차

당사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KB 국민카드가 내부개발한 신용평점시스템과 독립된 신용기관인 CB(Credit Bureaus)사의 신용평점시스템의 조합을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 발급 승인 여부를 결정함.

KB 국민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반영하는데, 그 정보들은 기초고객정보(신

용거래이력 등), KB 국민카드와의 거래이력, 타 신용카드회사 등 외부 금융기관들의 연체내역과 거래이력, 은행연합회와 CB 사가 제공한 신용정보 등임. 또한, KB 국민카드는 상환능력 및 자산, 총미상환 부채 및 거래 지속성과 과거 수익기여도도 고려하고 있음.

CB 사의 신용평점시스템은 외부 여러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연체내역과 거래이력 등 고객의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함.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신청평점시스템과 CB 사의 신용평점시스템의 신용평점 조합을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초기한도, 수수료율 등 신규 승인의 계약조건을 결정함. KB 국민카드의 시스템은 신규 신청자들을 자동승인대상, 자동거절대상, 추가심사대상그룹으로 나누고, 신규 신청자의 초기한도는 직업과 개인자산의 가치를 토대로 추정된 가치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고, 수수료율은 리스크 프리미엄과 수익성에 따라 적용됨.

총익스포저 관리

당사는 신용공여한도를 최적화하고 과도한 리스크 집중을 회피하고자 대기업, 재벌, 일부 중소기업 및 각 산업별로 총익스포저 관리한도를 설정, 관리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감독원 선정 주채무 계열 재벌과 리스크관리그룹 대표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벌, 30십억원이 넘는 (증권 또는 대출의 형태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재벌 소속업체 및 대기업과 20십억원 이상의 (증권 또는 대출의 형태로) 익스포저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관리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및 KB 국민은행이 지정한 재벌에 대한 총익스포저관리한도는 산업, 규모, 현금흐름, 재무비율 및 신용등급을 검토하여 설정하고, 산업에 대한 총익스포저관리한도는 산업별 성장률, 리스크 집중도를 검토하여 설정함. 이러한 총익스포저 한도는, 신용리스크관리심의회의 심의 후,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정함.

KB 국민은행의 최고 익스포저 관리한도는 단일 재벌그룹에 대하여는 KB 국민은행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25% 이하, 단일 대기업에 대하여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10% 이내임.

당사는 총익스포저 관리한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총익스포저 한도 관리시스템을 두고 있는바, 동 시스템은 대기업, 재벌, 각 산업에 대한 당사의 총익스포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임. 당사는 익스포저가 30십억원 이상인 대기업, 20십억원 이상인 개별기업, 그리고 잔여 여신규모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41대 재벌과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그룹 대표가 별도로 정한 24개 재벌을 포함하여 총 65개의 재벌에 대하여 당사의 익스포저를 모니터링함. 또한 산업별 익스포저도 모니터링하고 있음. 총익스포저한도 관리시스템은 당사의 해외지점과 자회사가 제공한 여신을 포함한 모든 신용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시스템이 관리하는 자산은 모든 원화/외화 대출, 증권, 특정금전신탁 이외의 모든 신탁계정자산, 보증, 무역관련여신, CP, 회사채 및 파생상품을 포함함.

담보가치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

KB 국민은행은 KB 국민은행이 보유하는 담보물의 청산가치를 관리하기 위하여 담보가치평가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바, KB 국민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전산화된 담보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담보물의 청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대출에 대한 회수율을 결정할 수 있음. 이를 이용하여 KB 국민은행은 신용리스크 관리와 여신정책을 수립함.

KB 국민은행은 KB 국민은행 여신에 대한 담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전국에서 거래되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 가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기도 함. KB 국민은행이 신규 대출을 하거나 만기가 되어 갹신하는 경우 또는 담보가치가 변하는 경우에도 담보가치를 각각 산정함.

신용리스크관리와 모니터링

KB 국민은행의 신용리스크관리부서는 당사의 여신 포트폴리오 정책을 관리 및 규제함. 신용리스크관리부서는 또한 당사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분석 및 점검하며 나아가 당사가 신용리스크의 해당 한도를 준수하는 지를 점검함. 또한, 신용리스크관리부서는 적절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장외파생상품들과 같은 고위험 상품들을 별도로 관리함.

신용감리

KB 국민은행의 신용감리 업무는 사업그룹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됨. 신용감리부는 여신관련 제도/정책/시스템에 대한 검토, 영업점 및 본부심사역이 수행한 신용평가 및 여신승인 업무의 적정성 점검,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등을 담당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차주의 현재 부채, 담보, 영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및 부채상환능력 등을 포함한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신용상태에 적절한 신용등급,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또한, 주요 이슈가 발생한 업종 및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성장성, 안정성, 경쟁요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소속업체들에 대한 여신정책과 산업별 총익스포저 관리한도를 조정하고 있음.

시장리스크 관리

당사가 보유한 주요 시장리스크는 채권과 이자율 상품에 대한 금리리스크이며, 그 다음으로는 주가리스크 및 외환리스크임. 이러한 리스크와 관련된 당사의 금융상품으로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이 있음. 당사는 현재 상품(commodity)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리스크의 다른 한 축인 상품(commodity) 리스크 노출은 없음. 또한 KB 국민은행의 은행계정에도 금리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가 존재하는바, 당사는 시장리스크를 트레이딩 부문과 비트레이딩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원칙을 수립하며, 트레이딩 부문에 대한 시장리스크 관리책임을 리스크관리그룹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에 위임하고 있음. 동 심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장 및 경제동향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가 승인한 정책에 기초하여 트레이딩 부문의 손익, 포지션, 한도관리, 민감도분석 및 VaR 에 대한 보고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함.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비트레이딩 부문의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바, 시장 및 경제동향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동 협의회의 위원들은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부를 통하여 월별로 KB 국민은행의 금리 및 유동성 갭포지션을 검토하고, 경영여건 및 ALM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KB 국민은행은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ALM 리스크관리에 대한 책임을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그룹 내의 리스크관리부에 부여하고 있는바, 리스크관리부는 재무기획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 절차 및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음.

트레이딩부문에 관한 시장리스크 관리

당사의 트레이딩 부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시장상황에 대한 단기예측에 기초하여 원화채권시장, 원화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에서의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당사 고유계정의 트레이딩 거래.
- 스왑, 선도,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트레이딩 거래의 대부분은 당사고객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거래와 상기 거래들에서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거래임. 한편 시장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일부 파생상품거래들은 IFRS 상 헷지회계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트레이딩 거래로 분류되었으나, 이러한 파생상품거래는 경제적 의미의 헷지거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됨.

당사는 시장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리스크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이익실현을 위한 파생상품 트레이딩 거래를 하고 있음. 당사 헷지전략의 주목적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당사의 시장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임. 당사는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헷지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음.

- KB 국민은행의 트레이딩부는 트레이딩 거래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리선물(원화국채선물) 및 금리스왑을 이용하고 있음.
- KB 국민은행의 트레이딩 거래에 따른 주가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하고 있음.
- KB 국민은행의 트레이딩부와 자금부는 트레이딩거래 및 외화자산·부채 포지션에 따른 금리리스크와 외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리스왑, 통화스왑, 외환선도, 외환선물, 유로달러선물 및 통화옵션을 이용하고 있음.
- KB 국민은행은 투자 혹은 자금조달 후 자산 및 부채의 금리속성을 변경시키기 위해 스왑을 이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시장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부 자금조달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스왑을 통해 변동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정금리부로 전환할 수 있음.

당사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시장리스크를 관리하는바, 시장리스크에 대한 당사의 익스포저를 통제하기 위해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설정한 전행 및 그룹별 경제적 자본한도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정한 전행 및 그룹별 VaR 한도,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와 KB 국민은행의 시장

리스크관리심의회가 설정한 부서별 VaR 한도,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 및 민감도한도(PVBP, 델타, 감마, 베가)를 이용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리스크통제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였음.

당사는 각 사업그룹 및 운용부서의 트레이딩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모니터링함. 원화 표시 및 외화표시 트레이딩 거래에 대한 당사의 시장리스크 측정모델은 ‘Adaptiv’라고 하는 시장 리스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B 국민은행의 모든 트레이딩 거래에 관한 일관성 있는 VaR 수치를 산출하고 있음.

VaR 분석: 당사는 시장리스크 측정기준으로 VaR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모델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신뢰구간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의 최대추정치로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임.

VaR 는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상 사용되는 기법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단점도 내포되어 있음. 이 모델은 과거의 시장변동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신뢰도 구간에서 특정 보유기간 동안의 예상 손실액을 추정하는 것임. 그러나 미래의 시장 상황을 모델이 예측하지 못하므로 과거의 시장 움직임만으로 미래사건을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계산시점의 가정들에 따라 손익발생의 시기와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이 모델에 사용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일 또는 10일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단위가 관련 기초자산포지션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자산보유기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보유기간이 불충분하거나 너무 장기인 경우 VaR 추정결과치는 잠재적 손실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소지도 있음. VaR 방법론과 분포에 대한 가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VaR 값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VaR 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트레이딩 포지션리스크를 측정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극도의 유동성부족의 상황 등에서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

당사는 일간 VaR 를 측정하기 위해 99% 단측신뢰구간을 이용함. 이는 실제손실금액이 VaR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100영업일중 단 1일에 불과함을 의미함. 2011년까지 당사는 일간 VaR 을 측정하기 위해 모수적 VaR (“PVaR”) 방식을 활용하였는바, 단일 리스크 범주뿐만 아니라 리스크 범주간의 분산효과도 반영하고 있음. 2012년 당사는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시장 변동성을 반영함에 있어 더욱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 (“HSVaR”) 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음. 완전가치평가를 사용하는 10일 HS VaR 방식은 역사적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VaR 값은 실제 10일간의 과거데이터 정보를 통해, 각 10일간의 데이터 변동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상의 시계열 수익률을 생성해서 산출함.

KB 국민은행의 트레이딩거래와 관련되는 금리리스크, 주가리스크, 외환리스크에 대한 일간 10일 VaR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2013.12.31. 현재 17.0십억원, 1.1십억원, 5.3십억원, 2014.12.31. 현재 10.1십억원, 0.9십억원, 10.8십억원, 그리고 2015.12.31. 현재 15.8십억원, 2.1십억원, 21.9십억원임. 기타 원문이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표준방법: VaR 방식사용을 미승인한 포지션에 대한 시장 리스크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명시한 시장 리스크 기반 소요자기자본을 측정하는 표준방법을 이용. 표준방법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본액은 각 리스크 요인에 따른 리스크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 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리스크 기반 소요자기자본 측정을 위한 표준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금리 리스크:

-일반시장리스크: 일반시장리스크는 이자율, 주가, 환율 및 일반상품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임. 채무증권의 금리 일반시장리스크는 잔존 만기 및 표면이자율(coupon rate)을 고려하여 순 포지션에 대하여 산출함.

-개별리스크: 개별리스크는 일반 시장 가격의 변동을 제외한 채무 증권이나 주식의 발행회사의 신용 리스크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임. 채무증권의 금리개별리스크는 해당 증권의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평가된 이자율 포지션을 채무 증권의 종류, 신용도 및 잔존 만기에 적용 가능한 리스크 가중치로 곱하여 측정함.

- 주식 리스크: 주식 일반 및 개별리스크는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각 해당 리스크 가중치로 곱하여 산출함.
- 외환 리스크: 외환 리스크는 각 외화의 순매수 또는 순매도 포지션 중 절대값이 큰 포지션을 해당 리스크 가중치로 곱하여 측정함.
- 옵션리스크: 옵션리스크는 해당 옵션의 델타값, 감마값 및 베가값을 이용하여 산출함.

표준방법은 금융감독원이 VaR 방식 사용을 미승인한 포지션의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됨. 또한, 당사는 특정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일일 포지션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VaR 값을 측정하기 어려운 포지션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이용함. 당사의 본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주석 4.4.2 참조.

사후검증: 당사는 매일 시장리스크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검증 절차에서 실제손익, 가상손익과 VaR 값을 비교하고, 99%의 신뢰구간을 벗어난 결과값들을 분석함. 2013년, 2014년 및 2015년에 공정가액, 이익 또는 현금흐름이 실제로 VaR 값을 벗어난 횟수는 각각 4, 1 및 6회임.

위기상황분석: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VaR 모델 이외에도, 당사는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상황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모델로서 위기상황분석을 활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변동상황으로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금리수준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경우를 포함함. VaR 모델은 특정 보유기간과 특정 신뢰수준 하에서 예상손실액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모델이고 시장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기대치를 벗어난 경우의 잠재적 손실을 추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위기상황분석은 VaR 모델에 대한 중요한 보완도구가 됨. 위기상황분석모델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변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특정 시나리오에 따른 보유포지션의 가치변화를 추정하는 것임. KB 국민은행의 위기상황분석에 의하면 2015.12.31. 현재 비정상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약 25% 정도 급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약 55 bp 상승하는 경우에 287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KB 국민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가 시장위험한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만약 위기상황에 의한 영향

력이 크면,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그룹대표는 포트폴리오 조정 또는 다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할 것임.

-금리리스크

당사의 트레이딩 거래와 관련한 금리리스크는 대부분 원화채권 매매에서 발생하고 있음. 당사의 매매전략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채무증권가격의 단기 매매차익을 얻는 것임. KB 국민은행의 트레이딩계정은 일별로 시가평가 되므로 VaR 모델이나 민감도분석과 같은 시가분석기법을 통하여 트레이딩계정의 금리리스크를 관리함. 2015.12.31. 현재 KB 국민은행의 트레이딩 부문 금리리스크 VaR는 15.8십억원이고, 수익이나 손실을 통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채무증권의 가중평균듀레이션 또는 가중평균만기는 대략 2.2년으로 나타남.

-외환리스크

당사의 외환리스크는 외환선도거래 및 통화스왑과 같은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임.

미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카자흐스탄 텡게 그리고 중국 위안화 표시 자산과 부채가 당사의 외화자산과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함.

당사의 순외환포지션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간의 차액에서 외환선도포지션, 통화옵션 및 통화스왑을 합산하여 계산함.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손실한도와 함께 순외환포지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트레이딩부문 및 비트레이딩부문을 포괄한 KB 국민은행의 외환익스포저를 감독하고 있음. VaR 한도는 당사의 국내영업과 해외지점을 통합하여 설정되어 있음.

2013년도, 2014년도 및 2015년도 말 KB 국민은행의 비연결 순외환포지션의 원문은 SEC 에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양(+의 값은 매입포지션, 음(-)의 값은 매도포지션을 의미하며 KB 국민은행을 제외한 당사의 다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외환포지션은 미미함.

-주식가격리스크

당사는 외화주가지수선물을 제외하고는 외화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주식가격리스크는 원화트레이딩주식파생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원화트레이딩주식파생 포트폴리오는 거래소 상장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외에 엄격한 분산투자한도로 관리되고 있음.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월간 및 연간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관리부가 한도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종목에 대한 손실한도는 관련 미들오피스에서 수행하고 있음.

2015.12.31. 현재 KB 국민은행의 트레이딩주식포지션은 31십억원임.

-파생상품 시장리스크

당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에는 금리스왑, 통화스왑, 외환선도, 주가지수선물, 금리선물, 통화옵션 등이 있는바, 파생상품거래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짐.

- 당사 기업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합한 고객지향 파생상품의 판매와 이러한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당사 익스포져 감소목적의 파생상품거래.
- 당사의 시장예측에 근거하여 단기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포지션 유지.
- 위에 기술된 금리 및 외환리스크 익스포져를 헷지하기 위한 트레이딩거래.

당사의 경우 트레이딩 파생상품거래는 주로 고객과의 거래이고,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오픈포지션을 보유하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는 미미한 수준임.

비트레이딩활동에 관한 시장리스크 관리

-금리리스크

당사의 비트레이딩 활동에서의 주요 시장리스크는 금리리스크임. 금리리스크는 만기나 이자율에 민감한 자산과 부채의 금리 재조정 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함. 당사는 당사의 은행계정의 원화 및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파생상품을 포함) 및 원본보전신탁계정에 대하여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음. 당사의 대부분의 이자부자산 및 이자부부채는 원화이며, 당사의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는 대부분 미국 달러화임.

당사의 금리리스크 관리의 주요 목표는 안정적인 순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당사의 자산가치를 이자율 변동으로부터 유지하기 위한 것임. 당사는 주로 이자부자산과 이자부부채간의 만기갭과 듀레이션갭을 분석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음. 당사의 비트레이딩 활동에서의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헷지상품을 제한적인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국내 금융시장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음. 당사는 가까운 장래에 국내 자본시장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당사의 파생상품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

이자율 갭분석: 각 만기와 이자율 재조정 시점마다 이자부자산과 이자부부채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순 이자수익의 예상되는 변동을 측정하는바, 당사는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금리가 재설정되는 만기에 근거하여 이자율 갭 분석을 수행하나, 만기가 없거나 특별한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 갭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자산의 만기와 관련하여서는, 당사는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연계대출의 경우, 잔여만기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으로, 잔여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는 실제 만기로 각 가정함.
- 부채의 만기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비핵심” 요구불예금 및 “핵심” 요구불예금의 분리를 위해 과거 36개월간의 평균잔액을 사용함. “비핵심” 요구불예금의 잔여만기는 1개월 이하, “핵심” 요구불예금의 잔여만기는 1개월부터 5년으로 가정함.

듀레이션 갭분석: 당사는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듀레이션 갭분석을 실시하는바, 동 분석은 자산 및 부채의 시장가치보다는 회계상 이익에 더 비중을 두는 이자율 갭분석과는 다르게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분석임. 당사는 장기적으로 이자율 변동과 관련한 당사의 주요 관심사가 순이자수익의 변동이 아닌 순자산가치의 변동이므로 듀레이션 갭분석을 강조하고 있음. 2015년도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이 (+)0.014년과 (+)0.005년 사이에서 변동을 하였으므로, 당사의 순자산가치는 금리가 1%p 하락할 경우 33십억원에서 13십억원 정도 하락할 수 있음.

듀레이션 갭분석시, 당사는 이자율 갭분석에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 만기와 동일한 만기를 가정하였음.

이자율 VaR 분석: 이자율 VaR 는 이자율의 부정적 변동으로 인하여 비트레이딩 순자산에 대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 추정책임. 당사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제외하고 99.94%의 신뢰구간에서 이자 수익 자산 및 이자부 부채를 기반으로 이자율 VaR 을 산출함. 2012년 당사는 이전의 내부 시뮬레이션 방식에서 이자율 영향을 산출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가능한 이자율 예상 시나리오를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식에 적용함. 동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식은 가상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포지션 분산 및 포트폴리오 시장 가치 변동을 산출하기 위한 현재 포지션 대비 실제 역사적 가격, 변동 및 수익 변동을 이용하는 방식임. 이전의 내부 시뮬레이션 방식에서는 가상 이자율을 각 만기 기간에 적용 시 극값을 이용하여 결국 과대평가된 이자율 VaR 값을 구함. 이에 따라, 당사는 이자율 VaR 방법론을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이용한 더욱 정확한 리스크 측정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함.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식을 이용하여, KB 국민은행의 이자율 VaR 값은 2013.12.31. 현재 203십억원, 2014.12.31. 현재 112십억원, 그리고 2015.12.31. 현재 95십억원임. 당사의 본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4.4.3 참조.

-외환리스크

당사는 당사의 비트레이딩 활동에서 발생하는 외환리스크를 트레이딩 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함께 관리하고 있음.

유동성리스크 관리

유동성리스크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액 사이의 차이로 인한 지급불능 또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인바, 당사는 예금의 지급, 만기도래한 사채의 상환, 차입자금의 만기상환 등 당사의 재정적 채무 등의 지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의 유동성을 관리함. 또한 당사는 대출금의 자금조달, 신용의 연장, 기타 증권예외의 투자 등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필요로 함.

당사의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목표는 당사의 모든 채무상환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불리한 시장상황에서도 모든 투자기회에 대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당사는 현시점까지도 중대한 유동성리스크를 경험한 적은 없음.

당사는 예금자나 기타 권리자들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보유함으로써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음. 당사는 매일 유동성 상태를 관리하고, 수시로 이자부자산이나 유가증권에 투자되지 못하는 현금보유량을 제한함으로써 당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음.

당사는 자금소요충족의 탄력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동성의 다양한 원천을 유지하고 있는바, 당사는 주로 개인 및 법인고객의 예금과 콜론 시장(만기 90일 미만의 단기대출시장)참여 및 사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단기차입부채와 장기자산을 기초로 한 현금흐름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유동성을 관리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당사의 신규 대출과 투자유가증권이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당사의 원화표시 정기예금의 신규 계약만기는 평균적으로 1년 미만임.

당사는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원화 및 외국환 계정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함. 금융위원회는 KB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이 (2015.1.1. 부터 2015.12.31. 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던 것에 비해) 2016.1.1. 부터 2016.12.31. 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85%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러한 최소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연 5%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외화 유동성비율을 8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로 정의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에 포함된 고유동성자산과 순현금유출액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에 따라 정해짐.

KB 국민은행의 자금부는 매일 당사의 원화 및 외국환 익스포져에 대한 유동성현황을 점검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을 위한 매월 계획을 재무전략협의회에게 보고함. KB 국민은행의 재무전략협의회는 이자율 변동, 예금, 대출 및 증권의 만기구조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예금 및 이자율에 관한 전략을 수립함.

2015.12.31. 현재 KB 국민은행의 LCR 비율은 108.68%이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인 외화유동성비율은 119.51%임.

KB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의 리스크관리부는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분기별로, KB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협의회에는 월별로 이와 같은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고하여야 함.

운영리스크 관리

개관

당사는 운영리스크를 바젤 II 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및 시스템 혹은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사의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사의 영업상 생길 수 있는 모든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리스크를 포함(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를 제외)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당사의 운영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각종 규제요건들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경영진들과 전체 직원들에게 강력한 리스크 관리 문화의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의 개선, 시의 적절한 의사결정지원 등을 통하여 내

부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있음.

현재 당사는 모든 자회사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KB 국민은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바젤 II의 고급측정법에 의해 운영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음.

- “손실분포기반 VaR”와 “시나리오 기반 VaR”를 사용하여 분기별 운영리스크 VaR 산출 및 주요위험지표(KRI)를 통한 운영리스크 모니터링
- 업무 프로세스의 위험과 통제레벨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월별 내부통제-운영리스크 통합 자가진단(혹은 CSA) 수행
- 내/외부 손실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시나리오 분석 수행
- 운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수립한 보험전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수행
- 상품, 정책, 시스템 등의 개발, 변경, 폐지와 관련된 운영리스크 점검
- 재난 상황 대비 대체사업장 구축 및 매년 대체사업장 훈련 실시 등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정교한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수립
- 전행 차원의 운영리스크 정책과 절차의 개선
-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각 사업부서의 운영리스크 담당직원 지원
- 경영진에 대한 운영리스크 보고

KB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부가 각 단위사업그룹에 관련 운영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지만, 각 단위사업그룹은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부 운영리스크팀은 전행적인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함. 또한 KB 국민은행은 모든 단위사업부문에 운영리스크 담당자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주기적으로 CSA 를 수행하고 KRI 를 모니터링함. 또한 해외점포의 운영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점포별로 전문 감사역을 선임하여 각 점포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는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함. 현지채용직원을 포함한 해외점포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분기 CSA 를 수행하고 있음. 기존 프로세스 및 신규사업 관련 운영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KRI 와 CSA 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업그룹 및 해외 점포의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내부통제

당사는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조직을 통틀어 안정적이고 잘 관리된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부서 직원들의 경우 부정 행위 방지 및 내부통제의 취약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 순환근무제 및 강제휴가제도를 두고 있고 외부 “옴부즈만” 채널을 통하여 부정 행위에 대한 고발과 자발적 신고를 장려함. 당사의 각 자회사는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에 따라 각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있음. 당사 준법지원부는 당사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각 자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자문을 제공함. 당사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임. 감사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영업프로세스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자회사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함.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평가함(외부감사인의 활동을 통

한 평가 포함). 특히, 그룹차원의 자회사 보고체계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자회사는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영업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준수 수준을 정기적으로 검토 하며, 발견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를 당사의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 당사 준법감시 담당임원(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보고 결과에 기초하거나 감사위원회가 발견한 문제점 내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하여 수시로 자회사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부, 준법지원부 및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교류함. 이로서 주주와 투자자,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의 재산을 보호함.

당사의 감사부는 다음과 같은 감사활동을 이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당사의 회계 및 사업운영을 모니터하고 각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감독하는 것을 지원함.

-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영업에 관한 종합감사 및 특정된 영업분야에 대한 부문감사 등 일반감사
- 사고발생 또는 취약점이 많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담당 미등기임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하거나 당사의 이사회, 미등기임원 또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당국에 의한 요청으로 이행되는 특별감사

금융감독원은 당사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신용감독 및 유동성과 같은 당사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부문검사를 실시함.

KB 국민은행의 내부 감사부서는 감사부와 심의/조사부의 2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위 두 부서는 KB 국민은행의 감사위원회를 위한 실무 조직이며, 리스크분석시스템(RAS, Risk Analysis System)을 활용하여 KB 국민은행 영업점 운영을 감사하고, 사업부문의 리스크와 절차를 평가하여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BMP(Business Measurement Process)감사 방법론에 따라 리스크 중심의 감사로 본부 및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경영목표달성을 지원함.

최근의 감독방향에 부응하고자 KB 국민은행의 내부 감사부서는 위험기반의 감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선진감사시스템과 부가가치가 높은 내부감사를 실시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당사의 준법지원부는 모든 직원들이 관련된 법과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시스템을 운영함.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관리에 관한 사항, 법규준수에 관한 임직원교육, 내부통제제도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임.

법률적 리스크

법률적 리스크를 운영리스크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당사의 고객과 사업 상대방의 의무이행의 불확실성이 법률 리스크를 생성하고 있음. 관련 법령과 규정의 개정도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비록 당사의 전통적인 금융사업영역에 있어서도 한국 내 법규 관련 환경이 변화하고 금융사업분야를 규제하는 많은 새로운 법령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만큼 법률리스크가 또한 증가할 수 있으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의 사업에 있어서 법률 리스크가 더 높음. 당사 준법지원부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률문서 작성 방법 및 거래에 적절히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절차를 적용하고 법률 자문가와 협의함으로써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화하고자 함.

IT 시스템 운영리스크

잠재적 재해 대항 능력을 갖춘 IT 시스템과 IT 시스템의 무결성은 당사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당사는 재해 복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당사는, IT 시스템 관련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 전산센터에 여러 개의 CPU 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CPU 중 어느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CPU 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멀티 CPU 시스템을 구현하였음. 이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데이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백업하여, CPU 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함. 당사는 그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스템 장애나 사이버 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거래를 세 개의 분리된 데이터처리센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KB 국민은행의 영업점과 메인 IT 센터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재해 복구 테스트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음. 당사의 재해복구 역량은 카드 및 콜센터 거래를 포함하며 여러 기타 운영과도 관련됨. KB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운영부가 모든 전산 네트워크 프로세스 및 IT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영업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 지연이나 불규칙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함. 또한 KB 국민은행의 정보보호본부는 KB 국민은행의 정보 보안 시스템의 일일 모니터링을 담당함. 핵심업무에 대하여 당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해킹시도와 같은 보안사항 위반 시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해 왔음.

특히, KB 국민은행에서는 IT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위협을 포착 및 그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 컴퓨터상의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기능을 분리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분리함. 당사는 모든 고객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내부적으로 생성 및 관리되는 고유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서류 양식을 수정하여 민감한 고객 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의 최고정보보안책임자는 정보자산 및 기술 보호, 그리고 IT 리스크 최소화 업무를 담당함.

KB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정보 보안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홈페이지 공격을 막기 위한 보호 솔루션, 로컬 네트워크 및 정보에 대한 미승인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시스템,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을 통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차단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음.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강화에 따라, KB 국민카드는 사내 휴대용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며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외부 자료 송부에 대한 관리자 승인을 요하고 각 부서의 현장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 보호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함.

2009년, KB 국민은행은 정보 보안에 관련한 ISO 27001 인증을 획득하였음. 2011년, KB 국민은행은 IT 서비스 운영에 관련한 ISO 20000 인증 및 사업연속성 관리에 관련한 BS 25999인증도 획득하였음. KB 국민은행은 위 3개 국제 인증을 획득한 첫 번째 국내 은행임. 한편, KB 국민은행과 KB 금융지주는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 인증을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획득하였음.

당사는 정보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함.

Item 12. *지분증권 이외의 증권에 대한 설명*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 청구

예약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ADS의 보유자는 예약기관에 일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예약기관에 발생한 비용, 세금 및 정부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기타 원문의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 청구 부분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예약기관의 당사에 대한 비용 지급 내역

예약기관이 상장 수수료 등 ADS 관련 비용을 당사에 지급한 내역은 SEC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Item 13. *채무불이행, 배당금 지체, 연체* : 해당사항 없음.

Item 14. *증권 보유자의 권리 및 수익의 사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 : 해당사항 없음.

Item 15. *통제와 절차*

공시 통제와 절차

당사는 2015.12.31. 현재 최고경영자 및 최고재무책임자의 감독과 참여 하에 공시통제 및 절차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재무보고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연례 보고서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을 부담함. 당사 경영진의 참여와 감독하에, 당사는 내부통제 기준(COSO FRAMEWORK 2013)에 따라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당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는 IASB에서 제정한 IFRS에 부합하는 공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의 신뢰성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당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는, ① 당사 자산의 거래 및 처분에 대한 기록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고,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거래가 기록되고, 당사의 수입과 지출이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③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인 받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또는 처분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함.

당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는, 그 내재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을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미래시점까지의 효과성 추론은 향후 환경 변화 때문에 통제가 적절하지 않게 되거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준수의 정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위

험을 안고 있음. 당사의 평가에 기초하여,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2015.12.31. 현재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음. 2015.12.31. 기준으로 보고된 당사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효과성은 독립적인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보고서에서 위 내부통제가 효과적이라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음.

공인회계사사무소의 인증보고서

당사의 독립적인 공인 회계법인의 인증보고서는 Form 20-F의 Item 18에 기재되어 있음.

재무보고 내부통제 변경

2015년도에 당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변경이 없었음.

Item 16. 보류 항목

Item 16A.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인 한종수를 Item 16A.의 의미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결정하였음.

Item 16B. 윤리강령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법상의 Form 20-F, Item 16B.에서 정의된 윤리강령을 채택함. 당사의 윤리강령은 현재 당사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됨. 당사의 윤리강령은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kbfg.com> 에 게시되어 있음. 당사가 윤리강령의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혹은 해당 조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개정 혹은 포기의 내용을 상기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임.

Item 16C. 주요 회계 수수료 및 서비스

감사 및 비감사 수수료

2014년 및 2015년 연간 기준으로 당사의 독립적인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액은 각각 5,517백만원 및 5,600백만원임. 기타 원문의 감사 및 비감사 수수료 부분은 SEC 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 정책 및 절차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의 외부 감사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사전 승인하고 있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들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일정한 기타 서비스들을 외부 감사인들이 당사의 자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

하여 사전 승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정책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 자회사들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한 사전승인을 각 감사위원회에 위임하였음: (i)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감사와 한국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와 관련된 서비스; (ii) 일반적인 세무 자문업무; (iii) 실사서비스; (iv) 증권모집과 관련한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s)의 발행업무; 그리고 (v)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기타 다른 감사 서비스나 허용된 비감사 서비스를 사안별로 사전 승인해야 함.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공표한 Regulation S-X 의 Rule 2.01(c)(7)(i)(C)의 최저 예외조항(de minimis exception)에 따른 비감사 서비스를 사전 승인한 적이 없음.

Item 16D.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장기준으로부터의 면제: 해당사항 없음.*

Item 16E. *당사 및 관계회사에 의한 주식 매수*

당사 및 미국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관계회사”는 이 연간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되는 기간 동안 당사의 지분증권을 매수하지 않았음.

Item 16F. *등록회사의 공인회계사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Item 16G.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비교: 표46)

미국 NYSE 가 요구하는 기업지배구조 기준과 국내 관련법규상 기준에 따른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표46) 참조.

Item 16.H. *광산 안전 공시: 해당사항 없음.*

Item 17. *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Item 18(재무제표), Item 19(별첨) 부분은 원문의 Exhibit 을 참조.